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 전공

김 태 한

2015년 8월

# 청소년의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남진열

김태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 함

2015년 6월

김태한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진관훈	
위원	항경수	
위원	남진열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년 6월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5
II. 이론적 배경 .....	7
1. 아르바이트 .....	7
2. 화폐태도 .....	8
3. 소비행태 .....	9
1) 정상소득에 의한 소비행태 이론 .....	10
2) 소득 이외의 요인에 의한 소비행태 이론 .....	10
3) 합리적 소비 .....	11
4) 비합리적 소비 .....	11
(1) 과소비 .....	13
(2) 충동소비 .....	13
(3) 모방소비 .....	13
4. 선행연구 고찰 .....	14
1) 아르바이트의 선행연구 고찰 .....	14
2) 화폐태도의 선행연구 고찰 .....	15
3) 소비행태의 선행연구 고찰 .....	15
III. 연구방법 .....	16
1. 연구문제 .....	16
2. 연구모형 .....	16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7
4. 측정도구 .....	17
1) 사회인구학적 요인 .....	18

2) 화폐태도 .....	18
3) 소비행태 .....	18
4)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18
(1) 화폐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19
(2) 소비행태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21
5. 자료분석방법 .....	22
IV. 분석결과 및 해석 .....	2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4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 .....	24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	25
2.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전반적인 경향 .....	28
1) 화폐태도의 전반적인 경향 .....	28
2) 소비행태의 전반적인 경향 .....	30
3.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	32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	32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	35
4.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	38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	38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	40
5.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	43
6. 학교 급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	45
1) 학교 급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 .....	45
2) 학교 급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충동소비)에 미치는 영향 .....	46
3) 학교 급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모방소비)에 미치는 영향 .....	47
4) 학교 급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	48
7.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	49
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 ..	49
2)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충동소비)에 미치는 영향 ..	51

3)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모방소비)에 미치는 영향	52
4)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53
8.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54
1) 화폐태도(인정받기위한 수단)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54
2) 화폐태도(성공의 상징)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56
3) 화폐태도(미래안정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57
4) 화폐태도(감정충족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58
5) 화폐태도(불안의 원천)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60
6) 화폐태도(인색과 불신)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61
V. 결론	63
1. 요약	63
2. 논의 및 제언	66
참고문헌	70
부록	76
Abstract	82

## 표 목 차

<표 1> 직업과 아르바이트의 차이점 .....	7
<표 2> 척도의 구성과 문항수 .....	17
<표 3> 화폐태도 문항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	19
<표 4> 소비행태 문항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	21
<표 5>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 .....	24
<표 6>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	27
<표 7> 화폐태도의 전반적인 경향 .....	29
<표 8> 소비행태의 전반적인 경향 .....	31
<표 9>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	34
<표 10-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	36
<표 10-2>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	37
<표 1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	39
<표 12-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	41
<표 12-2>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	42
<표 13>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	44
<표 14> 학교 급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 .....	45
<표 15> 학교 급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충동소비)에 미치는 영향 .....	46
<표 16> 학교 급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모방소비)에 미치는 영향 .....	47
<표 17> 학교 급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	49
<표 18>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 ..	50
<표 19>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충동소비)에 미치는 영향 ..	51
<표 20>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모방소비)에 미치는 영향 ..	52

<표 2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	53
<표 22> 화폐태도(인정받기위한 수단)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	55
<표 23> 화폐태도(성공의 상징)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	57
<표 24> 화폐태도(미래안정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	58
<표 25> 화폐태도(감정충족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	59
<표 26> 화폐태도(불안의 원천)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	60
<표 27> 화폐태도(인색과 불신)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	62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16
-------------------	----

<국문초록>

## 청소년의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태 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남진열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비합리적 소비성향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지 700부를 배부하였으며, 634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쉘페의 다중범위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바이트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52.5%가, 대학생의 90.1%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 소득에 대한 사용처는 고등학생이 옷, 신발 등 패션비용에 사용하는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은 학비나 생활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시작동기, 주된 근무시기, 주중 근무일수, 일간 근무시간, 월 평균소득,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나이 등 고등학생

과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화폐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 급별, 고등학교-학년, 거주형태, 경제적 형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소득사용처, 일간근무시간, 월평균소득,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나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소비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 급별, 학년, 가족형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시작동기, 소득사용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학교 급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는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소비행태의 하위요인별로 화폐태도의 하위요인이 대부분 정(+)의 영향을 미쳤고, 일부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 관계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간 다르게 나타났다.

다섯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는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소비행태의 하위요인별로 화폐태도의 하위요인이 대부분 정(+)의 영향을 미쳤고, '경험 유' 집단에서만 일부가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 관계는 '경험 유'와 '경험 무'의 집단 간 다르게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 급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화폐태도의 하위요인 중 미래안정의 도구와 소비행태와의 관계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와의 관계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장차 주된 소비자로서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증가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비합리적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향함으로써 똑똑한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 합리적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향상된 재화와 서비스 즉,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아르바이트, 화폐태도, 소비행태**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고 합리적인 소비,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두 조문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목표, 이념과도 상통한다. 기본적인 욕구 충족은 인간의 행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일 것이다.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생산품의 품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품의 품질이 향상되면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 즉,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생활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행태를 파악하고, 소비를 위한 돈, 화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할 돈, 화폐를 벌어들이게 되는 노동경험의 실태를 파악 하고, 이러한 노동경험이 화폐 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흔히 ‘아르바이트를 한다.’ 라고 한다면 학생이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TV 속 드라마 혹은 영화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장면들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난다. 용운준(2005)의 연구에서 812명의 고등학생 중 65.1%(529명)가, 그중 159명의 일반고(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50.3%(80명)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한다. 고민기(2006)의 연구에서는 360명의 특성화고(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하고 있다는 경우가 72.5%(261명)로 나타났고, 박광애(2007)의 연구에서도 378명의 고등학생 중 64.9%(251명)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유주현(2008)의 연구에서는 일반고 425명 중 34.1%(145명)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했으며, 김미송(2010)의 연구에서는 일반고 학생 311명을 포함한 467명 중 24.4%(114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50%를 넘는 비율이다.

백지숙(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675명 중 67.3%(454명)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2012)의 연구에서 대학생 208명 중 67.0%(168명)가, 고관우·남진열(2012)의 연구에서 대학생 320명 중 83.4%(267명)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한다. 린쉬에(2013)의 연구에서는 200명 중 69.5%(180명)가, 한가은(2015)의 연구에서는 514명 중 92.4%(475명)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75%를 넘는 비율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고등학생, 대학생 4명 중 2~3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의 본분이 학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아르바이트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벌어들인 돈을 사용하는 용도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지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 흐름의 하나인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기피 현상으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또한 쉽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학비나 생활비가 없어서 신문·우유 배달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 경제의 성장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직종도 다양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형편이 그리 어렵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하고자 하는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다(고민기, 2006).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주로 언제 하는지, 처음으로 경험한 시기는 언제인지,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그에 응당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소득이 생기게 마련이다. 즉, 소득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돈을 사용하는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소비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은 근본적으로 소비생활의 도구인 화폐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고 실용적인 도구로서 경제생활을 위하여 사용되지만,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 사람들은 화폐에 대하여 다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생활을 관리하는 양식이나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양식에서도 차이를 갖게 한다(김정훈 외, 2002).

이와 관련하여 화폐태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백은영, 1997; 백은영 외, 1998; 박정숙, 2001; 홍은실 외, 2001; 김영신, 2001; 김정훈 외, 2002; 김경자, 2003; 박정숙 외, 2003; 최현자 외, 2007; 우은정, 2008; 박정화, 2008; 전유현, 2009; 박정화 외, 2010; 공은희 외, 2011; 유수현, 2011; 전희원, 2011; 한 미, 2012; 린쉬에, 2013; 린쉬에 외, 2013)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훈 외(2002)는 이렇게 학자들이 화폐태도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이유가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비생활 태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여전히 소비사회일 것이고, 소비사회로서의 사회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가 하나의 단위로 되는 대규모 소비사회가 형성되어 국경을 초월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사회로의 이행을 담당할 주체는 미래의 소비문화를 주도해나갈 오늘날의 청소년 소비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청소년 소비자들이 소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소비행동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밝히는 작업은 중요하다(권미화, 2000).

복지적 관점에서 소비자는 곧 클라이언트(client)를 의미한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시행되었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생활보호제도로 빈곤한 사람 모두를 아우를 수 없게 되자 1999년 김대중 정부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생활보호법이 복지대상자에게 시혜적 성격을 띠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권리의 성격을 띤다(김성천 외, 2009; 김태성 외, 2010).

즉, 신청에 의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클라이언트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분명 경제학이나 소비자학에서 말하는 소비자와 그 성격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구조와 체계에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2007년에 도입된 바우처(voucher) 제도를 통해 본다면 복지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임에 틀림이 없다.

최근 사회서비스에 도입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가 소비자 지원방식의 서비스 공급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과 보조금이 직접 제공되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급자의 경쟁을 꾀하는 방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다(이지은, 2013). 이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복지서비스 중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한정된 비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간, 장소 및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선택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보편주의적 복지의 확산에 따라 특정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물론 누구든지 비용을 지불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 나아가 모든 국민이 소비자이다. 그중에서도 성인은 현 시대적 소비의 주된 소비자이다. 오진숙(2007)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소비가치와 소비행동의 유형은 성인기의 소비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청소년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가치나 소비행동이 형성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된 성인기의 소비자가 되기 전으로 말미암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르바이트 경험실태, 화폐태도, 소비행태와 관련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각각 독립된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안영희, 1999; 이영희, 2000; 김영신, 2001; 박정숙, 2001; 홍은실 외, 2001; 김정훈 외, 2002; 한연숙, 2002; 김경자, 2003; 김미숙, 2003; 박정숙 외, 2003; 이형실 외, 2004; 용윤준, 2005; 이효민, 2005; 박광애, 2007; 정미정 외, 2007; 최현자 외, 2007; 김미송,

2010; 공은희 외, 2011; 김민주, 2012; 심묘탁, 2014; 임한나, 2014)나 중·고등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문혜진, 2002; 유두련 외, 2004; 송시은, 2007; 정은영 외, 2007; 전유현, 2008; 문예진, 2009; 정지연, 2010; 차경옥 외, 2010; 최윤정, 2010; 전희원, 2011; 안선영 외, 2013; 안선영 외, 2014;), 한·중 대학생의 화폐태도에 대한 비교를 시도한 연구(한 미, 2012; 린취에, 2013)는 있었지만,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비교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합리적 소비성향과 소비자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비교한 연구(심미영, 2006)가 1편 있었으나, 아르바이트 경험실태와 화폐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는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실태, 화폐태도, 소비행태를 파악하고 두 집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실태,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비합리적 소비성향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에 사회인구학적 요인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르바이트 경험과 화폐태도, 소비행태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학교 급별로 비교연구를 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성별, 학교 급별, 학년, 가족형태, 거주형태, 경제적 형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시작동기, 소득사용처, 주된 근무시기, 주중 근무일수, 일간 근무시간, 월 평균소득, 첫 경험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별로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 급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

세 번째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매개효과가 있는지 학교 급별로 나누어 알아볼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란 독일어 Arbeit(노동, 업적이라는 뜻)에서 바뀌어 쓰이는 말로 자신의 본업과는 별도로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한다. 즉, 학생이나 직업인, 주부 등이 자신의 본업 이외에 부수적인 수입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민기, 2006; 김미정, 2014). 이와 유사한 의미로 시간제 근무(Part-time job)가 혼용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와 명확한 구분을 짓지 않는다.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 짓는다면 시간제 근무는 전일제 근무(Full-time job)와 함께 직업의 의미를 포함하며(임혜원, 2006) 직업과 아르바이트의 차이점은 <표 1>과 같다.

<표 1> 직업과 아르바이트의 차이점

구분	직업	아르바이트
기간	장기간 하는 일	단기간 하는 일
임금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일의 정체성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나이에 하는 일	사회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하는 일
직종	전문직	단순 서비스 업종
사회적 지위와의 관련성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지 않음

자료 : 서울시실업대책위원회.(2000). 「십대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연구」. p38 : 한연숙.(2002).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의 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경기북부 실업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p.7에서 재인용)

이처럼 아르바이트는 직업과 달리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없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다.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아르바이트란, ‘사회적 지위와 관련 없이 본업과는 별도로 수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일’로 정의하겠다.

## 2. 화폐태도

사회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화폐의 사회적, 정서적 가치, 의미에 대하여 연구해 왔다. 그리고 화폐에 부여되는 정서적, 상징적 의미나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하여 화폐태도(money attitude)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일반적으로 태도란 어떠한 대상에 대한 호(好), 불호(不好)의 감정을 말하지만, 화폐태도라 할 때는 감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등 광범위한 의미의 가치관 또는 신념으로 사용되었다(김경자, 2003).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비의 대부분은 화폐라는 중요한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화폐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써 개인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므로 화폐태도 또한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박정화, 2009). 현대사회에서는 화폐가 직무의 동기요소로써 중요하게 여겨짐은 물론, 인간행동의 전반에 걸쳐 강력한 동기요소로써 작용한다(Wilhelm, Varcoe & Fridrich, 1993). 사람들은 화폐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화폐에 대하여 개인마다 심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정서적인 면이 다르기 때문이다(김영신, 2001). 즉, 현대 사회에서 화폐가 갖는 의미는 교환의 수단이라는 경제적인 의미 외에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박정숙, 차경욱, 2003).

이렇듯 화폐태도는 개인의 특성, 인생 경험, 환경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개인마다 각각 다른 심리적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화폐가 긍정적·부정적 의미 또는 다양한 심리적·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중요성과 정신적인 기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Hollowell & Grace, 1991).

Yamauch & Templer(1982)는 화폐태도를 지위, 중요성, 우월감, 성취를 포함하는 ‘권력-지위(Power-Prestige)’, 긍정, 신뢰, 편안함, 부정, 불안, 실망 등의 측면인 ‘안전감(Security)’, 인색, 축적, 다소 강박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저장감(Retention)’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었고, 이를 다시 5가지 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그 내용으로 첫째, 돈을 권력이나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 시간

이나 저장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며, 셋째, 돈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넷째, 권력이나 지위의 상징을 기반으로 한 우월감, 성취의 척도로 여기는 것으로 질적인 측면을 말하며, 다섯째, 돈에 대한 불안, 걱정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

Furnham(1984)의 척도는 MAS 척도의 심리적 차원에 행동특성까지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척도로서, 돈의 지위와 중요성에 몰두하는 강박적 태도(Obsession), 기분전환 또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지출자적 태도(Power/Spender), 돈에 대한 결정, 소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태도(Inadequacy), 돈을 노력의 결과로 보는 태도(Effort/Ability)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Tang(1992)은 심리적 측면을 감정적 차원(Affective)과 인지적 차원(Cognitive)으로 나누어서 보다 세부적으로 측정하였고, 행동적 측면(Behavioral)을 포함하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6가지의 하위차원으로 세분화하였다. 감정적 차원은 돈을 선(Good)으로 보는 태도와 악(Evil)으로 보는 태도로 나누었고, 인지적 차원은 돈을 성취(Achievement)의 척도로 인식하는 태도와 힘이나 자유(Freedom)를 얻는 도구로 여기는 태도 및 존경(Respect)의 척도로 나누었으며, 행동적 차원은 태도에서 비롯된 실제적인 돈을 관리하는 행동인 예산(Budget)을 의미한다.

### 3. 소비행태

소비란 필요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소비활동을 소비행동, 소비행태라고 한다(심묘탁, 2014). 소비행태는 소비자 능력의 구성요소 중에서 실천적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규모, 소비구조, 구매행동, 소지품 사용실태 등 소비행동을 하는 태도를 말한다(박광애, 2007). 소비행태는 소비자 행동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개인마다 자신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를 획득·사용하는 태도를 말하

며, 의사결정과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소비행동의 양상이다(정미정·이연숙, 2007). 한편, 이효민(2005)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상소득에 의한 소비행태 이론과 소득이외 요인에 의한 소비행태 이론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 1) 정상소득에 의한 소비행태 이론

2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앞두고 전쟁 후 미국 경제의 예측에 있어서 케인즈(keynes)의 소비함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측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소비이론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쟁이 계기가 되어 일련의 가설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이론들의 논점은 결국 소비가 소득에 의존하지만, 그 소득이 현재소득(current income)인가 과거소득(past income)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기대소득(expected income)인가에 있다. 소비이론이야말로 경제이론을 하나의 가설(hypothesis)로 보고 그 타당성 여부를 현실경제의 통계자료에 비추어 계량경제학적 접근 방법으로 검증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이형순, 1983).

#### 2) 소득 이외의 요인에 의한 소비행태 이론

소득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상이한 이론들의 출현은 소득 이외의 요인에 의해 소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추론을 가져온다. 최근 들어 이론의 발전, 컴퓨터의 보급, 분석 가능한 자료의 제공 등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변수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사회경제적·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가구규모, 가구구조, 가구특성, 주거지역, 교육수준, 관습, 취업자 수 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두 번째는 화폐적 요인(financial factors)으로 환율, 이자율, 소득변동, 가격 등의 요인에 의한 소비의 변동을 말한다.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합리적 기대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계수(係數)를 구하거나 대리변수(代理變數)를 이용한 분석기법으로 이론을 정밀화시키고 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구매의도, 충동구매, 예상, 선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변수는 모형 내에 포함되어 소비지출의 유형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네 번째는 제도의 개혁 및 개선을 통해 소비변동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이다. 앞의 요인들은 경제 내부 또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소비수준을 결정하는데 반해 제도적 요인은 경제 외적 요인으로 정책적 특성이 강하여 강제적으로 소비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단기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며, 장기적으로도 소비관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국민연금제도, 금융실명제, 소비자금융제도, 영업시간의 제한, 의료보험제도, 조세제도, 최저임금제, 해외여행의 자유화 등을 들 수 있다.

### 3) 합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란 시장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 자신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 성능, 효용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효용 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다(정 준, 1997). 소비자는 자신의 다양하고 무한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데 경제적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소비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결국, 소비자는 한정된 소득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이기춘 외, 2001).

이렇듯 합리적 소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을 말한다. 쇼핑을 가기 전에 쇼핑품목을 미리 작성하고, 제품구매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하며, 할인판매 기간을 기다렸다가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즉, 구매할 제품의 종류, 가격 및 상표를 미리 정하고 설명서 및 강점 등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특성이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대부분의 소비자는 욕구 충족을 위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였다면 소비자의 소비행동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유주현, 2008).

### 4) 비합리적 소비

일반적 소비행태 이론에서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가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다른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하든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선호 체계 속에서 상품의 쓸모에 따라 주어진 소득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소비행태를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인 라이벤슈타인(H. Leibenstein, 1950)은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며, 특히 상품을 수요함에 있어 상호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승효과, 백로효과, 베블렌 효과 등으로 분류한다(박명희, 1994).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란 현실 세계에서는 단순히 다른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품을 덩달아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른 소비자의 수요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좋은 예가 여성들은 유행에 뒤질세라 비슷한 의상을 입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면 개별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편승효과가 있으면 그것이 없을 때보다 개별수요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수요도 커지게 된다.

백로효과(snob effect)는 편승효과와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그 재화의 소비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을 말한다. 백로효과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청바지가 일반화되어 너도나도 청바지를 입게 되면 이제 청바지는 격이 낮은 옷이라 생각하고 청바지를 입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백로효과가 있으면 그것이 없을 때보다 개별 수요가 작아지고 시장 수요 또한 작아진다.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는 소비자들이 돈보이고 싶어서 소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강남의 한 상점에서 옷이 팔리지 않자 가격표에 '0'으로 한 단위를 더 붙였더니 잘 팔리더라는 일화가 있는데 이것이 베블렌 효과의 한 예이다. 외제자동차, 다이아몬드 반지, 외제가구 등 값비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도 베블렌 효과에 해당한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허영심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베블렌 효과를 크게 받는다. 베블렌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가 없을 때보다 가격이 높은 재화일수록 개별수요가 커지고 시장수요

도 커진다.

편승효과와 백로효과는 타인의 수요에 대응한 소비인데 반해 베블렌 효과는 가격에 따른 소비로 구별 지을 수 있다.

#### (1) 과시소비

오늘날은 상품의 기능에 기초한 효용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품이 지니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추세에 있다. 과시소비는 유명상품의 선호, 고가상품 위주의 구매 등으로 나타나는 소비양상으로 자신이 남보다 돋보이려고 경제적 규모 이상을 지출하는 소비행태를 말한다(유주현, 2008).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로서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과시소비는 상품의 이미지나 상호에 민감하고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적 경향을 나타내려는 성향을 말한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품보다는 외제품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가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고급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 (2) 충동소비

충동소비는 제품에 대한 강한 호의적 감정이 발생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동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구매 시점에서 소비행동의 결과를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갖는다. 또한, 소비자는 충동소비를 우울, 좌절, 무료함 등의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이학식 외, 2003).

이처럼 충동소비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제품의 겉모양, 포장 등을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을 말한다. TV 등을 통해 새로운 상품 광고를 보면 즉시 구입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물건을 산 후 자주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 구입 계획이 없던 물건도 눈에 띄면 사는 경우가 많으며, 물건을 살 경우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상품을 구매하는 특성이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 (3) 모방소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

다 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소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별생각 없이, 꼭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주위 사람이나 상위계층의 소비를 따라 하는 유형이 모방소비이다(최윤정, 2010). 소비자 개인의 필요와 선호 때문에 자주적·주체적으로 특정 제품이나 상표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나 준거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소속 욕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소비행동으로서 모방성·유행추구성과 같은 맥락의 소비행태라고 볼 수 있다(유주현, 2008). ‘친구가 샀으니까’, ‘옆집에서 샀으니까’, ‘연예인이 한 것이니까’라는 식의 구매는 모방소비의 대표적 유형이다(허경옥, 2001).

#### 4. 선행연구 고찰

##### 1) 아르바이트의 선행연구 고찰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문혜진(2002), 한연숙(2002), 김미숙(2003), 용윤준(2005), 유성렬(2005), 안선영 외(2013), 안선영 외(2014)의 연구는 탐색적 조사로서 아르바이트의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하여 아르바이트 의식·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복지대책 및 정책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고등학생,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고민기, 2006; 백지숙, 2006; 최지영, 2009; 김미정, 2014)이 있으며, 직업가치관, 직무태도, 직업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연구들(임혜원, 2006; 김종성 외, 2010; 이매결, 2014)도 있다. 또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고관우 외, 2012),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광애, 2007)가 이루어졌고, 한경혜(2000), 김혜경(2013)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질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관점에 대해 논한 바가 있다.

## 2) 화폐태도의 선행연구 고찰

화폐태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Yamauch & Templer(1982)가 개발한 MAS(Money Attitude Scale) 척도, Furnham(1984)의 MBBS(Money Belief and Behaviors Scale) 척도, Tang(1992)의 MES(Money Ethic Scale) 척도를 번안하고 수정·보완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화폐태도 유형별 소비행동 유형을 분석하거나 소비성향 및 상품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백은영, 1997; 백은영 외 1998; 김영신, 2001; 박정숙, 2001; 전희원, 2001; 김정훈 외, 2002; 박정숙 외, 2003; 전유현, 2008, 박정화, 2009; 박정화 외, 2010; 유수현, 2011; 한 미, 2012)이 진행되었다. 탐색적 조사로서 대학생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화폐태도에 대한 실태, 가치특성 등에 관한 연구들(홍은실 외, 2001; 김정훈 외, 2002; 김경자, 2003; 최현자 외, 2007; 공은희 외, 2011; 린쉬에, 2013; 린쉬에 외, 2013)도 진행되었으며, 우은정(2008)은 소비행태와 화폐태도에 따른 가격탄력성 및 가격민감성 차이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 3) 소비행태의 선행연구 고찰

소비행태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현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 보고서(한국소비자보호원, 1996/1999; 한국소비자원, 2007/2011)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고등학생 소비행태에 관한 요인분석(김미송, 2010), 청소년 소비교육, 소비지식, 금융·경제의식 및 이해정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호민, 2005; 박광애, 2007; 정미정 외, 2007; 유경원, 2010; 정지연, 2010; 최윤정, 2010; 김민주, 2012; 심묘탁, 2014)이 진행되었다. 또한,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 등 소비행태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각각 관련변인, 소비자문제 유형분석,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들(안영희, 1999; 이영희, 2000; 유두련 외, 2004; 이형실 외, 2004; 심미영, 2006; 송시은, 2007; 정은영 외, 2007; 전유현, 2008; 문예진, 2009; 차경욱 외, 2010; 전희원, 2011, 임한나, 2014)도 이루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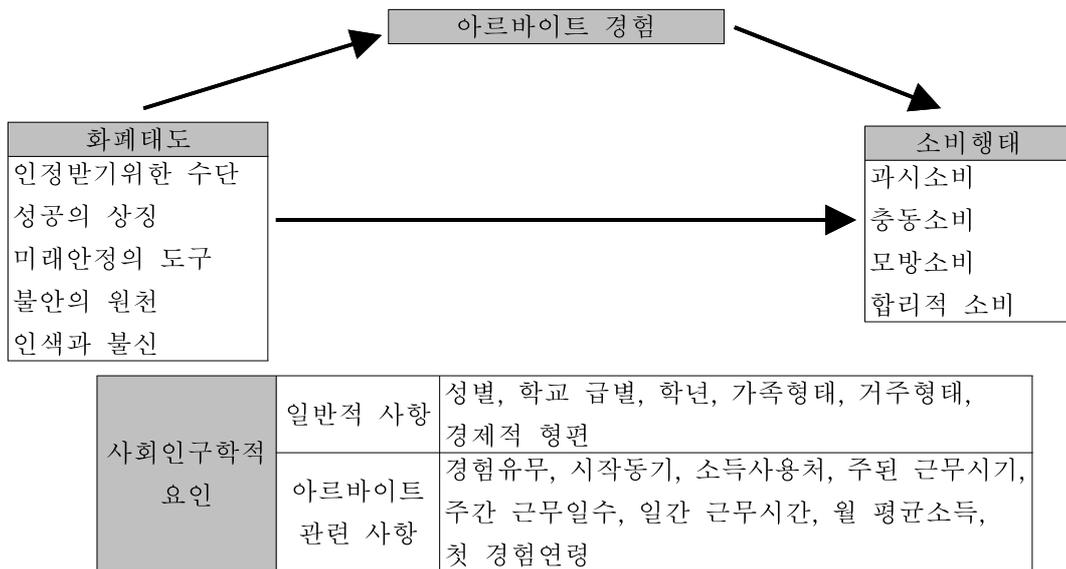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화폐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소비행태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교 급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학교 급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 2. 연구모형

연구문제를 기초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본 조사에 앞서 측정문항에 대한 이해정도와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350부씩 총 700부를 배부하였다. 고등학생의 불성실한 응답지와 미회수분을 제외한 324부, 대학生的 불성실한 응답지와 미회수분을 제외한 301부를 합하여 총 634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 4.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14문항, 화폐태도 30문항, 소비행태 24문항 등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척도의 구성과 문항수

척 도		문 항 수		
사회인구학적 요인	일반적 사항	6	14	68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8		
화폐태도	인정받기위한 수단	5	30	
	성공의 상징	8		
	미래안정의 도구	4		
	감정충족의 도구	5		
	불안의 원천	4		
	인색과 불신	4		
	소비행태	과시소비		
	충동소비	6		
	모방소비	6		
	합리적소비	6		

###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일반적 사항과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 학교 급별(고등학생, 대학생), 학년, 가족형태, 거주형태, 경제적 형편을 측정하였고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으로는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시작동기, 소득사용처, 근무시기, 주간 근무일수, 일간 근무시간, 월 평균소득, 첫 아르바이트 경험한 나이를 측정하였다.

### 2) 화폐태도

화폐태도의 척도는 Yamauch & Templer(1982)의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백은영(1997)이 번안한 척도와 박정숙(2001), 박정화(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하위요인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미래안정의 도구, 감정충족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색과 불신으로 구분하여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분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요인에 따른 화폐태도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소비행태

소비행태에 사용된 척도는 한국소비자보호원(현 한국소비자원)의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통계(제4차 1996년), 「국민 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조사통계 제5차 1999년)의 설문내용을 기초로 삼아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로 구분하여 6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소비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 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1) 화폐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화폐태도 문항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설명된 총 분산은 58.8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화폐태도는 선행 연구결과의 하위요인과 유사하게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각각 성공의 상징, 불안의 원천, 감정충족의 도구, 미래안정의 도구, 인색과 불신, 인정받기위한 수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 9번 문항(나는 최고급품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편이다.)과 10번 문항(나는 가능한 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편이다.), 23번 문항(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카드나 월부(할부)로 사는 편이다)은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0.7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  값으로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성공의 상징 8문항, 불안의 원천 4문항, 감정충족의 도구 4문항, 미래안정의 도구 4문항, 인색과 불신 4문항, 인정받기위한 수단 3문항인 총 27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3> 화폐태도 문항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문 항	요 인 분 석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1 : 성공의 상징							
7	나를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	.733	.119	.007	.038	.031	.096	.563
6	성공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재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701	.249	.072	-.036	.064	.168	.593
29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696	.064	.294	.016	-.016	-.019	.576
28	나는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691	.282	.104	-.055	-.046	-.027	.574
8	나는 때때로 능력이나 성취와는 관계없이 나보다 돈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낀다.	.666	-.173	.196	.147	.130	.158	.575

5	나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54	.301	-.043	-.130	.087	.123	.560
3	나는 돈이 성공의 궁극적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631	.187	.146	.020	.026	.323	.559
4	가끔씩 나의 용돈 또는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랑하곤 한다.	.476	-.279	.361	.172	.065	.246	.529
	요인2 : 불안의 원천			요인2				
26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걱정이 된다.	.195	.783	.116	-.004	.129	.040	.683
25	나는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는 편이다.	.206	.775	.123	.030	.227	.005	.710
24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진다.	.139	.619	.335	.110	-.024	.216	.574
27	돈의 양이 크든 적든 돈을 쓰는 결정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147	.594	.027	.124	.198	.023	.430
	요인3 : 감정충족의 도구			요인3				
20	나는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136	.036	.820	-.026	.015	.051	.696
22	나는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107	.145	.793	.008	-.036	.185	.696
30	나는 돈 지출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352	.318	.550	.009	.053	.075	.536
21	나는 별로 원치 않는 물건이라도 세일기간 중이거나 가격이 인하되면 사는 경향이 있다.	.130	.199	.526	-.004	.253	.246	.457
	요인4 : 미래안정의 도구			요인4				
13	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저축을 하는 편이다.	.003	-.004	.007	.813	.046	.023	.663
12	나는 미래를 위해 재정계획을 하는 편이다.	.023	.063	.134	.789	.044	.139	.666
14	나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049	.124	-.002	.781	.001	.049	.630
15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052	.006	-.107	.691	.141	.033	.512
	요인5 : 인식과 불신					요인5		
17	물건을 산 후에는 꼭 다른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든다.	-.026	.144	.043	.069	.766	.200	.655
18	나는 비싼 물건을 살 때 마다 꼭 속아서 사는 것 같다.	.066	.004	.318	.004	.689	.004	.580
19	나는 돈이 있건 없건 일단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 라고 말하는 편이다.	.186	.139	-.006	.056	.680	-.124	.535
16	나는 어떤 목적에서든지 뭔가를 살 때 가격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	-.064	.285	-.199	.182	.581	.025	.496
	요인6 : 인정받기위한 수단						요인6	
1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구입할 때가 있다.	.103	.139	.054	.044	.194	.768	.662
2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고급스런 물건을 갖는 경향이 있다.	.304	-.018	.199	.166	.061	.732	.700
11	나는 유명브랜드 제품을 사는 편이다.	.178	.046	.223	.081	-.213	.585	.487
	고유값	3.96	2.67	2.58	2.55	2.18	1.94	
	설명분산(%)	14.68	9.88	9.56	9.44	8.09	7.2	
	누적분산(%)	14.68	24.56	34.12	43.56	51.65	58.85	
	신뢰도(Cronbach's $\alpha$ )	.847	.783	.760	.784	.679	.647	

(2) 소비행태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소비행태 문항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설명된 총 분산은 55.8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비행태는 선행 연구결과의 하위요인과 동일하게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각각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로 명명하였고, 이 중 6번 문항(내가 산 물건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면 기분이 좋다.)과 7번 문항(나는 TV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보면 남보다 빨리 그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다.)은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0.7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  값으로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과시소비 5문항, 충동소비 5문항, 모방소비 6문항, 합리적 소비 6문항인 총 22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4> 소비행태 문항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	요인 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성
요인1 : 모방소비					
15	.777	.142	.012	.122	.639
16	.760	.155	-.031	.231	.656
17	.760	.135	-.035	.102	.607
14	.682	.101	-.030	.401	.636
13	.557	.266	.068	.351	.508
18	.537	.359	.012	.139	.437
요인2 : 과시소비					
3	.169	.835	.043	.112	.741
2	.177	.768	.086	.052	.631
1	.028	.689	.056	.244	.538
4	.382	.673	-.016	.135	.617
5	.168	.596	.087	.138	.410
요인3 : 합리적 소비					

22	나는 신발, 가방을 살 때 다른 회사의 제품, 다른 상점의 가격과 비교하여 본 후 구입하는 편이다.	-.068	.086	.774	-.035	.613
20	나는 물건을 살 때 사야 할 물건의 종류, 상표, 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구매하는 편이다.	.033	.143	.751	.001	.585
21	나는 물건을 살 때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차례로 구입하는 편이다.	-.064	.062	.741	-.180	.590
19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의 구매경험을 귀담아 들어 상품이나 상점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연구하는 편이다.	.033	.016	.637	.155	.457
23	나는 포장된 상품을 살 때에는 내용물에 대한 성분, 주의사항 등을 먼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143	-.086	.634	-.191	.466
24	나는 가격이 비싼 물건을 살 때에는 세일기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084	-.095	.616	.086	.403
요인4 : 충동소비						
9	나는 우연히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 당장 필요한 물건은 아니더라도 일단 사고 보는 편이다.	.092	.251	-.047	.761	.652
11	나는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물건을 사는 편이다.	.297	.088	-.057	.681	.564
10	나는 색상이나 디자인 포장이 마음에 드는 상표의 물건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구입하는 편이다.	.075	.417	-.030	.628	.574
8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물건을 산 후 자주 후회하는 편이다.	.295	.079	-.001	.602	.456
12	나는 선물가게나 문방구 등에서 포장을 보고 구매하였다가 후회를 하는 편이다.	.381	.056	-.017	.589	.495
고유값		3.43	3.17	2.94	2.74	
설명분산(%)		15.59	14.41	13.34	12.46	
누적분산(%)		15.59	30.00	43.34	55.80	
신뢰도(Cronbach's $\alpha$ )		.843	.818	.785	.776	

## 5. 자료분석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소비행태와 화폐태도를 측정된 항목의 타당성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lpha$  값으로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고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소비행태와 화폐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쉘페의 다중범위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관계,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대한 특성은 <표 5>와 같다. 총 625명 중 고등학생이 324명으로 51.8%, 대학생이 301명으로 48.2%이다. 전체 남녀 비율은 남자가 53.6%, 여자가 46.4%로 구성되었다. 학년구분에서는 1학년 27.7%, 2학년 39.8%, 3학년 24.2%, 4학년 8.3%로 2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4학년은 대학생만 해당하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가족형태는 전체적으로 부모 81.3%, 한부모 15.3%, 조부모 2.6%, 본인 가장 0.8% 순이며 부모가족의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우리 집 77.3%, 기숙사 13.8%, 자취 6.2%, 친척 집 2.2%, 기타 0.2% 순으로 기타에는 그룹홈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경제적 형편은 '아주 잘 사는 편이다' 1.4%, '대체로 잘 사는 편이다' 13.8%, '중간정도' 68.2%, '대체로 못 사는 편이다' 15.5%, '아주 못 사는 편이다' 1.1%로 '중간정도'가 가장 많았다.

<표 5>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

변수		고등학생 (51.8%)		대학생 (48.2%)		전체 (100.0%)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81	55.9	154	51.2	335	53.6
	여자	143	44.1	147	48.8	290	46.4
	계	324	100.0	301	100.0	625	100.0
학년	1학년	106	32.7	67	22.3	173	27.7
	2학년	151	46.6	98	32.5	249	39.8
	3학년	67	20.7	84	27.9	151	24.2
	4학년	-	-	52	17.3	52	8.3
	계	324	100.0	301	100.0	625	100.0
가족형태	부모	240	74.1	268	89.0	508	81.3

	한부모	71	21.9	25	8.3	96	15.3
	조부모	10	3.1	6	2.0	16	2.6
	본인 가장	3	0.9	2	0.7	5	0.8
	기타	0	0.0	0	0.0	0	0.0
	계	324	100.0	301	100.0	625	100.0
거주형태	우리 집	281	86.7	202	67.1	483	77.3
	친척 집	6	1.9	8	2.7	14	2.2
	기숙사	30	9.3	56	18.6	86	13.8
	자취	4	1.2	35	11.6	39	6.2
	하숙	0	0.0	0	0.0	0	0.0
	기타	3	0.9	0	0.0	3	0.5
	계	324	100.0	301	100.0	625	100.0
경제적 형편	아주 잘 사는 편이다	5	1.5	4	1.3	9	1.4
	대체로 잘 사는 편이다	46	14.2	40	13.3	86	13.8
	중간정도	209	64.5	217	72.1	426	68.2
	대체로 못 사는 편이다	59	18.3	38	12.6	97	15.5
	아주 못 사는 편이다	5	1.5	2	0.7	7	1.1
	계	324	100.0	301	100.0	625	100.0

##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대한 특성은 <표 6>과 같다. 총 625명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1.0%로 444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을 몇 가지 더 물어보았다.

고등학생은 324명 중 52.5%인 170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고, 대학생은 301명 중 91.0%인 274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시작 동기는 77.3%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 78.2%, 76.6%로 가장 많았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두 번째로 많았고 11.3%에 해당하여 고등학생이 답변한 2.9%에 비해 3배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등학생은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축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두 번째로 많았고 4.7%에 해당하며 대학생이 답변한 0.7%에 비하면 7배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행경비 마련, 부모님 용돈이나 선물 등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소득 사용처는 옷, 신발 등 패션비용이 30.2%로 응답 수가 가장 많았고, 학비나 생활비가 27.7%,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 여가생활비가 16.0% 순으로 많았다. 고등학생은 전체 응답순위와 마찬가지로 옷, 신발 등 패션비용이 37.6%로 가

장 많았다. 대학생은 학비나 생활비에 쓴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의 응답인 11.2%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대학생의 경우 옷, 신발 등 패션비용에 쓴다는 응답은 25.5%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고등학생의 경우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 여가생활비에 쓴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25.9%였으며 대학생의 응답인 9.9%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행경비, 저축 등에 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용돈의 사용처와 대학생이 인지하는 용돈의 사용처가 사뭇 다를 수 있었다. 두 집단 모두 76% 이상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 소득에 대한 사용처는 고등학생의 경우 주로 옷, 신발 등 패션비용에 대한 지출이었고, 대학생의 경우는 학비나 생활비에 대한 지출이었기 때문이다.

주된 근무시기는 학기 중 주말이 28.4%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각각 27.6%, 28.8%로 학기 중 주말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주중 근무일수는 1~2일이 32.4%로 가장 많았는데, 주된 근무시기의 학기 중 주말 즉, 주말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과 맞물리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주중 근무 일수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일주일에 며칠 동안 하나요?’라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문항 중 ‘정해져 있지 않음’은 일시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아르바이트를 의미하며 ‘1~2일’과는 다르다. 고등학생의 경우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12.4%보다 매일 한다는 응답이 18.8%로 더 많은 것과는 반대로 대학생은 매일 한다고 응답한 5.1%보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 즉, 단기아르바이트가 11.3%로 더 많았다.

일간 근무시간은 2시간 미만 3.6%,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5.8%,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7.6%,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25.4%, 8시간 이상 17.6%였으며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고등학생은 6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31.0%였고, 대학생은 50.4%로 차이를 보였다.

월 평균소득은 20만 원 미만 13.3%, 20만 원 이상 40만원 미만 27.0%, 40만 원 이상 60만원 미만 25.3%, 60만 원 이상 80만원 미만 18.0%, 8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9.9%, 100만 원 이상 6.5%였으며, 고등학생은 20만 원 이상 40만원 미만

이 33.5%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은 40만 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다.

첫 경험 연령1은 몇 살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는지를 알아본 결과다. 첫 아르바이트 경험은 20살 때가 28.6%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의 경우 17살 때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의 경우 20살 때가 46.4%로 가장 많았다.

첫 경험 연령2는 20세를 기준으로 언제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는지 알아본 결과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의미가 있으며 그 결과는 20세 이상일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사람이 52.2%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변수		고등학생		대학생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험유무	예(경험 있다.)	170	52.5	274	91.0	444	71.0
	아니오(경험 없다.)	154	47.5	27	9.0	181	29.0
	계	324	100.0	301	100.0	625	100.0
시작동기	용돈을 벌기 위해서	133	78.2	210	76.6	343	77.3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5	2.9	31	11.3	36	8.1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	2	1.2	7	2.6	9	2.0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4	2.3	3	1.1	7	1.6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3	1.8	3	1.1	6	1.3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8	4.7	2	0.7	10	2.3
	저축을 위해서	8	4.7	4	1.5	12	2.7
	새로운 일을 배우기 위해서	3	1.8	7	2.5	10	2.2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2	1.2	3	1.1	5	1.1
	기타	2	1.2	4	1.5	6	1.4
계	170	100.0	274	100.0	444	100.0	
소득 사용처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 여가생활비	44	25.9	27	9.9	71	16.0
	선물이나 고가의 물건 구입(휴대폰 등)	5	2.9	2	0.7	7	1.6
	학비나 생활비	19	11.2	104	37.9	123	27.7
	부모님이나 동생 용돈	14	8.2	4	1.5	18	4.0
	이·미용비(화장품 구매 등 포함)	5	3.0	7	2.6	12	2.7
	옷, 신발 등 패션비용	64	37.6	70	25.5	134	30.2
	음주 등 유흥비	2	1.2	22	8.0	24	5.4
	이성친구와의 데이트비용	6	3.5	23	8.4	29	6.5
	빚을 갚음	0	0.0	0	0.0	0	0.0
	기타	11	6.5	15	5.5	26	5.9
계	170	100.0	274	100.0	444	100.0	
주된 근무시기	학기 중 평일	24	14.1	54	19.7	78	17.6
	학기 중 주말	47	27.6	79	28.8	126	28.4
	학기 중 평일, 주말 모두	28	16.5	37	13.5	65	14.6
	방학 때만	43	25.3	52	19.0	95	21.4

	방학 유무 관계없이 모두	28	16.5	52	19.0	80	18.0
	계	170	100.0	274	100.0	444	100.0
주중 근무일수	1~2일	49	28.8	95	34.7	144	32.4
	3~4일	27	15.9	81	29.6	108	24.3
	5~6일	41	24.1	53	19.3	94	21.2
	매일	32	18.8	14	5.1	46	10.4
	정해져 있지 않음	21	12.4	31	11.3	52	11.7
	계	170	100.0	274	100.0	444	100.0
일간 근무시간	2시간 미만	1	0.6	15	5.5	16	3.6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28	16.5	42	15.3	70	15.8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88	51.8	79	28.8	167	37.6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30	17.6	83	30.3	113	25.4
	8시간 이상	23	13.5	55	20.1	78	17.6
	계	170	100.0	274	100.0	444	100.0
월평균 소득	20만원 미만	28	16.5	31	11.3	59	13.3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57	33.5	63	23.0	120	27.0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27	15.9	85	31.0	112	25.3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32	18.8	48	17.5	80	18.0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9	11.2	25	9.1	44	9.9
	100만원 이상	7	4.1	22	8.1	29	6.5
계	170	100.0	274	100.0	444	100.0	
첫경험 연령1	13살 때	2	1.2	0	0.0	2	0.5
	14살 때	7	4.1	2	0.7	9	2.0
	15살 때	14	8.2	5	1.9	19	4.3
	16살 때	53	31.2	11	4.0	64	14.4
	17살 때	69	40.6	13	4.7	82	18.4
	18살 때	23	13.5	32	11.7	55	12.4
	19살 때	2	1.2	68	24.8	70	15.8
	20살 때	-	-	127	46.4	127	28.6
	21살 때	-	-	13	4.7	13	2.9
	22살 때	-	-	2	0.7	2	0.5
	23살 때	-	-	1	0.4	1	0.2
	계	170	100.0	274	100.0	444	100.0
	평균(표준편차)		16.5(1.073)		19.2(1.380)		18.1(1.807)
	첫경험 연령2	20세 미만	170	100.0	131	47.8	301
20세 이상		-	-	143	52.2	143	32.2
계		170	100.0	274	100.0	444	100.0

## 2.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전반적인 경향

### 1) 화폐태도의 전반적인 경향

<표 7>은 화폐태도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화폐태도의 6가지 하위요인별,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5점 Likert 척도로 5점에 가까울수록 각

각 하위요인별 화폐태도에 대한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정받기위한 수단’은 평균 2.47점, ‘성공의 수단’은 2.28, ‘미래안정의 도구’는 2.73, ‘감정충족의 도구’는 2.39, ‘불안의 원천’은 2.88, ‘인색과 불신’은 3.01점, 전체 평균은 2.63점으로 전반적인 경향이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화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안정의 도구’는 화폐에 대하여 계획적 지출, 저축 등 긍정적인 의미로써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 2.73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을 밑돌고 있다. 3점 이상은 ‘불안의 원천’ 중 27번 문항인 ‘돈의 양이 크든 적든 돈을 쓰는 결정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에서 평균 3.07점으로 나타났고, ‘인색과 불신’이 평균 3.01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6번 문항인 ‘나는 어떤 목적에서든지 뭔가를 살 때 가격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와 17번 문항인 ‘물건을 산 후에는 꼭 다른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든다.’가 각각 평균 3.45점과 3.13점으로 나타났다.

<표 7> 화폐태도의 전반적인 경향

화폐태도	문항	M	SD
인정받기 위한 수단	1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구입할 때가 있다.	2.76	0.89
	2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 고급스런 물건을 구입할 때가 있다.	2.31	0.87
	11 나는 유명브랜드 제품을 사는 편이다.	2.35	1.01
	소 계	2.47	0.71
성공의 상징	3 나는 돈이 성공의 궁극적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48	0.98
	4 가끔씩 나의 용돈 또는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랑하곤 한다.	1.89	0.78
	5 나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82	1.11
	6 성공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재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2.47	0.96
	7 나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	2.13	0.93
	8 나는 때때로 능력이나 성취와는 관계없이 나보다 돈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낀다.	1.93	0.81
	28 나는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2.51	1.01
	29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2.01	1.03
	소 계	2.28	0.65
미래안정의 도구	12 나는 미래를 위해 재정계획을 하는 편이다.	2.66	0.95
	13 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저축을 하는 편이다.	2.64	0.99
	14 나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2.84	1.82

	15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2.80	0.99
		소 계	2.73	0.78
감정충족의 도구	20	나는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2.12	0.98
	21	나는 별로 원치 않는 물건이라도 세일기간 중이거나 가격이 인하되면 사는 경향이 있다.	2.60	1.02
	22	나는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2.34	1.03
	30	나는 돈 지출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2.49	1.02
		소 계	2.39	0.78
불안의 원천	24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진다.	2.51	1.11
	25	나는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는 편이다.	2.96	1.08
	26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걱정이 된다.	2.99	1.10
	27	돈의 양이 크든 적든 돈을 쓰는 결정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3.07	1.03
		소 계	2.88	0.84
인색과 불신	16	나는 어떤 목적에서든지 뭔가를 살 때 가격을 제일 먼저 고 려한다.	3.45	0.93
	17	물건을 산 후에는 꼭 다른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든다.	3.13	0.97
	18	나는 비싼 물건을 살 때 마다 꼭 속아서 사는 것 같다.	2.53	0.93
	19	나는 돈이 있건 없건 일단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 라고 말하 는 편이다.	2.95	1.03
		소 계	3.01	0.69
		총 계	2.63	0.46

## 2) 소비행태의 전반적인 경향

<표 8>은 소비행태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소비행태의 4가지 하위요인별,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5점 Likert 척도로 5점에 가까울수록 각각 하위요인별 소비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과시소비’는 평균 2.48점, ‘충동소비’는 2.28점, ‘모방소비’는 1.99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을 밑돌고 있고, 4가지 하위요인 중 바람직한 소비인 ‘합리적 소비’는 3.22점으로 비합리적 소비인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에 비해 ‘합리적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볼 경우에도 ‘합리적 소비’ 중 19번 문항인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의 구매경험을 귀담아 들어 상품이나 상점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연구하는 편이다.’와 20번 문항인 ‘나는 물건을 살 때 사야 할 물건의 종류, 상표, 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구매하는 편이다.’, 21번 문항인 ‘나는 물건을 살 때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차례로 구입하는 편이다.’, 22번 문항인 ‘나는 신발, 가방을 살 때 다른 회사의 제품, 다른 상점의 가격과 비교하여 본 후 구입하는

편이다.’, 24번 문항인 ‘나는 가격이 비싼 물건을 살 때에는 세일기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가 각각 평균 3.06점, 3.15점, 3.50점, 3.38점, 3.45점으로 나타났다.

<표 8> 소비행태의 전반적인 경향

소비행태	문항	M	SD
과시소비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값이 비싼 물건을 사는 편이다.	2.35	0.85
	2 나는 신발, 가방 등을 살 때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품보다 외국브랜드를 선호하는 편이다.	2.51	1.01
	3 나는 옷을 살 때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유명한 상표의 제품을 고르는 편이다.	2.46	0.98
	4 나는 물건을 구입할 때 광고에 나오는 상표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다.	2.19	0.86
	5 나는 가격이 비싼 물건이 품질도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편이다.	2.88	0.98
	소 계		2.48
충동소비	8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물건을 산 후 자주 후회하는 편이다.	2.40	0.96
	9 나는 우연히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 당장 필요한 물건은 아니라도 일단 사고 보는 편이다.	2.35	1.03
	10 나는 색상이나 디자인 포장이 마음에 드는 상표의 물건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구입하는 편이다.	2.38	0.99
	11 나는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물건을 사는 편이다.	2.15	0.95
	12 나는 선물가게나 문방구 등에서 포장을 보고 구매하였다가 후회를 하는 편이다.	2.12	0.90
	소 계		2.28
모방소비	13 주변의 친구들이 유행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따라 사는 편이다.	2.31	0.86
	14 나는 친구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입하는 편이다.	1.89	0.76
	15 나는 주위의 친구가 입고 있는 유명상표의 옷이 입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간청하여 구입한 적이 있다.	1.98	0.94
	16 주변의 친구가 값비싼 유명상표의 확용품을 샀을 때 나도 따라 사는 편이다.	1.74	0.76
	17 나는 물건을 살 때 주변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편이다.	2.07	0.86
	18 나는 다른 친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핸드폰 등)을 남보다 빠르게 구입하는 편이다.	1.97	0.85
	소 계		1.99
합리적 소비	19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의 구매경험을 귀담아 들어 상품이나 상점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연구하는 편이다.	3.06	1.06
	20 나는 물건을 살 때 사야 할 물건의 종류, 상표, 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구매하는 편이다.	3.15	1.04
	21 나는 물건을 살 때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차례로 구입하는	3.50	0.93

		편이다.		
22		나는 신발, 가방을 살 때 다른 회사의 제품, 다른 상점의 가격과 비교하여 본 후 구입하는 편이다.	3.38	0.98
23		나는 포장된 상품을 살 때에는 내용물에 대한 성분, 주의사항 등을 먼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2.79	0.92
24		나는 가격이 비싼 물건을 살 때에는 세일기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3.45	0.98
		소 계	3.22	0.68
		총 계	2.49	0.45

### 3.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일반적 사항 중 성별, 학교 급별, 고등학교-학년, 거주형태, 경제적 형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대학교-학년,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정받기위한 수단은 학교 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t=-3.224, p<.01$ )를 보였는데, 고등학생(2.38)보다 대학생(2.57)이 높게 나타났다.

성공의 상징은 고등학교-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F=3.994, p<.05$ )를 보였고, 고등학교 3학년(2.17)보다 2학년(2.42)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안정의 도구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t=-2.488, p<.05$ )를 보였고, 남자(2.66)보다 여자(2.81)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F=2.701, p<.05$ )를 보였고, 대체로 잘 사는 편(2.96)이 가장 높았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에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충족의 도구는 성별( $t=-5.476, p<0.001$ ), 학교 급별( $t=-3.348, p<.01$ ), 고등학교-학년( $F=7.756, p<0.01$ ), 거주형태( $F=2.468, p<.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2.23)보다 여자(2.57)가, 고등학생(2.29)보다 대학생(2.49)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학년에 대한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고등학교 1학년(2.07)보다 2학년(2.36)과 3학년(2.48)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친척 집(2.89)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에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의 원천은 성별( $t=-2.766$ ,  $p<.01$ ), 학교 급별( $t=-6.416$ ,  $p<.001$ ), 고등학교-학년( $F=5.578$ ,  $p<.01$ ), 거주형태( $F=4.758$ ,  $p<0.1$ ), 경제적 형편( $F=3.227$ ,  $p<.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2.80)보다 여자(2.98)가, 고등학생(2.68)보다 대학생(3.10)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학년과 거주형태에 대한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고등학교 1학년(2.46)보다 2학년(2.79)과 3학년(2.78)이, 우리 집(2.83)과 기숙사(2.94)보다 자취(3.35)가 높게 나타났다.

인색과 불신은 성별( $t=-3.917$ ,  $p<.001$ ), 거주형태( $t=2.487$ ,  $p<.05$ ), 경제적 형편( $F=2.902$ ,  $p<.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2.91)보다 여자(3.13)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친척 집(3.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제적 형편은 대체로 잘 사는 편(2.88)보다 대체로 못 사는 편(3.21)이 높게 나타났다.

<표 9>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변수	구분	N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미래안정의 도구			감정충족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색과 불신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성별	남자	335	2.47(.72)	0.042	-	2.32(.65)	1.656	-	2.66(.78)	-2.488*	-	2.23(.72)	5.476***	-	2.80(.83)	2.766**	-	2.91(.69)	3.917***	-	
	여자	290	2.47(.70)			2.23(.64)			2.81(.78)			2.57(.80)			2.98(.84)			3.13(.68)			
학교 급별	고등학생	324	2.38(.72)	-3.224**	-	2.30(.68)	0.936	-	2.69(.74)	-1.411	-	2.29(.75)	3.348**	-	2.68(.83)	6.416***	-	3.04(.74)	1.141	-	
	대학생	301	2.57(.68)			2.26(.61)			2.78(.82)			2.49(.79)			3.10(.80)			2.98(.64)			
학년	고등학교	1학년 <sup>a</sup>	106	2.42(.75)	0.999	/	2.23(.65)	3.994*	b> c	2.66(.67)	0.194	/	2.07(.69)	7.756**	b,c >a	2.46(.75)	5.578**	b,c >a	2.96(.80)	1.184	/
		2학년 <sup>b</sup>	151	2.41(.71)			2.42(.70)			2.70(.75)			2.36(.70)			2.79(.82)			3.09(.71)		
		3학년 <sup>c</sup>	67	2.27(.70)			2.17(.66)			2.73(.82)			2.48(.86)			2.78(.92)			3.07(.67)		
	대학교	1학년	67	2.60(.62)	1.262	/	2.34(.59)	0.648	/	2.68(.70)	0.734	/	2.48(.76)	0.262	/	3.12(.72)	0.770	/	3.01(.59)	1.363	/
		2학년	98	2.48(.68)			2.21(.62)			2.78(.86)			2.45(.83)			3.19(.78)			3.06(.71)		
		3학년	84	2.56(.74)			2.25(.62)			2.88(.90)			2.56(.80)			3.05(.91)			2.94(.62)		
		4학년	52	2.71(.67)			2.24(.62)			2.77(.76)			2.49(.76)			3.00(.77)			2.86(.59)		
	가족 형태	부모	508	2.49(.72)	1.709	/	2.29(.63)	0.143	/	2.73(.76)	0.168	/	2.39(.75)	0.413	/	2.89(.82)	0.648	/	3.01(.66)	0.735	/
한부모		96	2.38(.68)	2.26(.74)			2.72(.87)			2.32(.87)			2.88(.92)			2.99(.82)					
조부모		16	2.50(.46)	2.20(.70)			2.83(.76)			2.52(.98)			2.75(.99)			3.14(.67)					
본인가장		5	1.93(.71)	2.33(.85)			2.90(1.23)			2.50(.92)			3.35(1.46)			3.40(.88)					
거주 형태	우리 집	483	2.47(.71)	1.222	/	2.27(.66)	0.677	/	2.75(.79)	0.970	/	2.37(.78)	2.468*	/	2.83(.85)	4.758**	d> a,c	2.99(.69)	2.487*	/	
	친척 집	14	2.30(.78)			2.43(.72)			2.39(.91)			2.89(.90)			3.30(1.02)			3.54(.74)			
	기숙사	86	2.55(.66)			2.34(.55)			2.67(.76)			2.36(.72)			2.94(.79)			3.02(.70)			
	자취	39	2.43(.73)			2.29(.68)			2.73(.66)			2.56(.73)			3.35(.58)			3.13(.57)			
	기타	3	1.78(.69)			1.88(.54)			3.00(.90)			1.83(.72)			2.58(1.51)			2.83(.38)			
경제적 형편	아주 잘 사는 편	9	2.07(.95)	2.216	/	2.42(.69)	0.162	/	2.50(1.08)	2.701*	/	2.58(.79)	0.591	/	3.06(1.16)	3.227*	d> b	2.92(.94)	2.902*	d> b	
	대체로 잘 사는 편	86	2.64(.77)			2.31(.65)			2.96(.74)			2.43(.76)			2.64(.91)			2.88(.66)			
	중간정도	426	2.46(.70)			2.27(.64)			2.72(.77)			2.37(.77)			2.89(.80)			3.00(.67)			
	대체로 못 사는 편	97	2.41(.64)			2.27(.68)			2.61(.84)			2.39(.83)			3.07(.86)			3.21(.75)			
	아주 못 사는 편	7	2.67(.84)			2.23(.56)			2.89(.32)			2.71(.99)			3.07(1.10)			2.89(.81)			

\*p<.05, \*\*p<.01, \*\*\*p<.001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는 <표 10-1>, <표 10-2>와 같다.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중 경험유무, 소득사용처, 일간근무시간, 월평균소득, 첫 경험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시작동기, 주된 근무시기, 주중근무일 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정받기위한 수단은 경험유무( $t=3.200, p<.01$ ), 소득사용처( $F=1.980, p<.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험 없다(2.33)보다 경험 있다(2.53)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사용처는 이·미용비(2.83)가 가장 높았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공의 상징은 경험유무( $t=2.313, p<.05$ ), 소득사용처( $F=2.019, p<.05$ ), 첫 경험연령( $t=2.457, p<.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험 없다(2.19)보다 경험 있다(2.32)가 높게 나타났으며, 첫 경험연령은 20세 이상(2.21)보다 20세 미만(2.37)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사용처는 음주 등 유흥비(2.47)가 가장 높았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래안정의 도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사항이 없었다. 감정충족의 도구는 경험유무( $t=5.351, p<.001$ ), 소득사용처( $F=2.445, p<.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험 없다(2.13)보다 경험 있다(2.49)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사용처는 이·미용비(2.90)가 가장 높았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의 원천은 경험유무( $t=6.344, p<.001$ ), 소득사용처( $F=1.772, p<.05$ ), 첫 경험연령( $t=-2.213, p<.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험 없다(2.94)보다 경험 있다(3.02)가 높게 나타났으며, 20세 미만(2.96)보다 20세 이상(3.14)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사용처는 이성친구와의 데이트 비용(3.2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색과 불신은 일간근무시간( $F=2.731, p<.05$ ), 월평균소득( $F=2.758, p<.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간근무시간은 2시간 이상~4시간 미만(3.15)이, 월평균소득은 2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3.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변 수	구 분	N	인정받기 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미래안정의 도구			감정충족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색과 불신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경험 유무	예(경험 있다.)	444	2.53(.69)	3.200**	-	2.32(.64)	2.313*	-	2.77(.79)	1.552	-	2.49(.79)	5.351**	-	3.02(.83)	6.344**	-	3.05(.66)	1.741**	-
	아니오(경험 없다.)	181	2.33(.73)		2.19(.66)	2.66(.75)		2.13(.70)	2.94(.79)		3.01(.82)	2.94(.76)								
시작 동기	용돈을 벌기 위해	343	2.54(.68)	1.385	/	2.36(.62)	1.316	/	2.71(.77)	1.639	/	2.48(.77)	0.655	/	3.01(.82)	1.735	/	3.04(.66)	1.384	/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36	2.52(.79)		2.16(.69)	2.94(.91)		2.57(.88)	3.25(.78)		3.15(.58)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	9	2.85(.44)		2.17(.40)	2.56(.93)		2.75(.77)	2.50(.81)		2.56(.51)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7	2.14(.81)		2.04(.37)	2.96(1.21)		2.46(.65)	3.42(.86)		3.53(.76)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6	2.33(.87)		1.98(.86)	3.38(.85)		2.46(1.04)	2.58(.49)		2.88(.56)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	2.13(.67)		2.48(.69)	2.65(.64)		2.68(.72)	3.03(.58)		3.20(.51)									
	저축을 위해서	12	2.78(.61)		2.40(.73)	3.29(.77)		2.62(.87)	3.13(.88)		3.04(.68)									
	새로운 일을 배우기 위해서	10	2.33(.57)		1.91(.39)	2.78(.66)		2.35(.99)	2.68(.97)		2.93(.70)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5	2.53(.50)		2.38(1.01)	3.05(.41)		2.40(.68)	2.40(.52)		2.80(.76)									
	기타	6	2.94(.90)		2.27(1.19)	3.04(.66)		1.92(.58)	3.33(1.07)		3.25(.97)									
소득 출처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 여가생활비	71	2.43(.67)	1.980*	/	2.29(.53)	2.019*	/	2.59(.67)	2.233	/	2.25(.68)	2.445*	/	2.76(.70)	1.772*	/	3.00(.66)	1.174	/
	선물이나 고가의 물건 구입(휴대폰 등)	7	2.48(.63)		2.77(.63)	2.68(.49)		2.54(.74)	2.82(.69)		2.96(.59)									
	학비나 생활비	123	2.44(.66)		2.18(.61)	2.85(.75)		2.41(.78)	3.03(.81)		3.00(.66)									
	부모님이나 동생 용돈	18	2.50(.77)		2.38(.85)	2.90(.94)		2.53(.77)	2.81(1.05)		3.46(.75)									
	이·미용비(화장품구매 등 포함)	12	2.83(.76)		2.40(.83)	2.79(.40)		2.90(.95)	3.08(1.06)		3.02(.68)									
	옷, 신발 등 패션비용	134	2.69(.71)		2.41(.62)	2.83(.84)		2.59(.78)	3.10(.85)		3.04(.61)									
	음주 등 유흥비	24	2.42(.40)		2.47(.64)	2.24(.80)		2.69(.77)	3.20(.76)		2.96(.80)									
	이성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29	2.56(.79)		2.38(.67)	2.84(.93)		2.76(.86)	3.28(.84)		3.16(.67)									
기타	26	2.35(.72)	2.13(.75)	2.83(.87)	2.34(.79)	2.93(.78)	3.09(.70)													

\*p<.05, \*\*p<.01, \*\*\*p<.001

<표 10-2>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화폐태도의 차이

변수	구분	N	인정받기 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미래안정의 도구			감정충족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색과 불신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주된 근무 시기	학기 중 평일	78	2.55(.75)			2.22(.65)			2.66(.84)			2.49(.89)			3.07(.84)			3.07(.69)		
	학기 중 주말	126	2.48(.62)			2.35(.61)			2.68(.70)			2.47(.78)			2.97(.79)			3.05(.64)		
	학기 중 평일, 주말 모두	65	2.74(.74)	1.961	/	2.42(.69)	1.266	/	2.88(.86)	1.590	/	2.53(.77)	2.290	/	3.01(.89)	1.337	/	3.13(.69)	0.502	/
	방학 때만	95	2.51(.73)			2.35(.65)			2.78(.79)			2.33(.68)			2.89(.79)			3.02(.66)		
	방학 유무 관계없이 모두	80	2.45(.65)			2.24(.62)			2.90(.83)			2.68(.77)			3.15(.84)			2.98(.64)		
주중 근무 일수	1~2일	144	2.50(.66)			2.33(.64)			2.71(.72)			2.47(.81)			3.00(.83)			3.09(.72)		
	3~4일	108	2.69(.69)			2.36(.65)			2.80(.81)			2.56(.78)			3.08(.81)			2.94(.59)		
	5~6일	94	2.44(.73)	2.217	/	2.24(.65)	0.616	/	2.90(.86)	1.157	/	2.42(.77)	0.419	/	2.94(.91)	0.493	/	3.13(.67)	1.405	/
	매일	46	2.41(.66)			2.30(.64)			2.70(.90)			2.51(.73)			2.97(.86)			2.98(.68)		
	정해져 있지 않음	52	2.54(.72)			2.38(.63)			2.67(.74)			2.52(.11)			3.09(.64)			3.06(.54)		
일간 근무 시간	2시간 미만	16	2.52(.91)			2.03(.61)			2.48(.73)			2.66(1.02)			2.80(.98)			2.70(.82)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70	2.57(.75)			2.39(.60)			2.87(.95)			2.47(.81)			3.19(.86)			3.15(.73)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67	2.55(.63)	0.460	/	2.31(.66)	1.005	/	2.82(.75)	1.377	/	2.50(.77)	0.263	/	2.93(.81)	1.498	/	3.09(.68)	2.731*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13	2.54(.73)			2.33(.65)			2.71(.72)			2.50(.78)			3.05(.84)			3.06(.57)		
	8시간 이상	78	2.53(.69)			2.32(.64)			2.68(.85)			2.45(.75)			3.02(.76)			2.90(.61)		
월 평균 소득	20만원 미만	59	2.48(.73)			2.31(.69)			2.75(.65)			2.38(.72)			2.90(.79)			3.10(.71)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120	2.55(.56)			2.36(.62)			2.71(.71)			2.57(.81)			3.04(.78)			3.15(.65)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112	2.64(.72)			2.30(.65)			2.74(.90)			2.54(.79)			3.14(.84)			3.04(.60)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80	2.43(.82)	1.694	/	2.32(.68)	0.168	/	2.81(.85)	0.397	/	2.42(.82)	0.870	/	3.03(.88)	1.813	/	2.91(.66)	2.758*	/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4	2.36(.60)			2.29(.63)			2.88(.87)			2.40(.71)			2.74(.88)			3.14(.11)		
	100만원 이상	29	2.67(.73)			2.26(.55)			2.84(.70)			2.55(.74)			3.03(.71)			2.75(.10)		
첫 경험 연령	20세 미만	301	2.51(.70)	-0.713	-	2.37(.65)	2.457*	-	2.78(.74)	0.659	-	2.49(.77)	-0.037	-	2.96(.81)	-2.213*	-	3.07(.67)	1.068	-
	20세 이상	143	2.56(.68)			2.21(.62)			2.73(.89)			2.49(.81)			3.14(.85)			3.00(.63)		

\*p<.05, \*\*p<.01, \*\*\*p<.001

#### 4.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는 <표 11>과 같다.

일반적 사항 중 성별, 학교 급별, 학년, 가족형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거주형태, 경제적 형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시소비는 학교 급별( $t=-3.795, p<.001$ ), 대학교-학년( $F=2.785,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고등학생(2.38)보다 대학생(2.59)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학년은 4학년(2.83)이 가장 높았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충동소비는 성별( $t=-3.822, p<.001$ ), 학교 급별( $t=-2.313, p<.05$ ), 고등학교-학년( $F=5.314, p<.01$ ), 가족형태( $F=2.770,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2.16)보다 여자(2.42)가, 고등학생(2.22)보다 대학생(2.35)이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고등학교-학년은 1학년(2.03)보다 2학년(2.28)과 3학년(2.38)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모(2.4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방소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합리적 소비는 성별( $t=-3.990, p<.001$ ), 학교 급별( $t=-3.381, p<.01$ ), 고등학교-학년( $F=3.662,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3.12)보다 여자(3.34)가, 고등학생(3.13)보다 대학생(3.32)이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고등학교-학년은 1학년(3.00)보다 3학년(3.30)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일반적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변 수	구 분	N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성별	남자	335	2.46(.76)	-0.813	-	2.16(.69)	-4.822***	-	1.97(.63)	-1.283	-	3.12(.69)	-3.990***	-	
	여자	290	2.50(.66)			2.42(.70)			2.03(.62)			3.34(.66)			
학교 급별	고등학생	324	2.38(.74)	-3.795***	-	2.22(.76)	-2.313*	-	1.99(.66)	-0.355	-	3.13(.72)	-3.381**	-	
	대학생	301	2.59(.67)			2.35(.63)			2.00(.59)			3.32(.63)			
학년	고등학교	1학년	106	2.34(.73)	0.223	/	2.03(.66)	5.314**	c,d>a	1.95(.58)	0.241	/	3.00(.71)	3.662*	c>a
		2학년	151	2.39(.75)			2.28(.77)			2.00(.70)			3.15(.72)		
		3학년	67	2.39(.74)			2.38(.83)			1.99(.72)			3.30(.69)		
	대학교	1학년	67	2.57(.63)	2.785*	/	2.46(.56)	1.276	/	2.17(.54)	2.493	/	3.25(.66)	0.686	/
		2학년	98	2.51(.68)			2.30(.61)			1.96(.62)			3.38(.60)		
		3학년	84	2.55(.71)			2.37(.75)			1.92(.61)			3.34(.71)		
		4학년	52	2.83(.60)			2.25(.56)			2.01(.52)			3.26(.52)		
	가족형태	부모	508	2.50(.69)	1.019	/	2.31(.68)	2.770*	/	2.01(.61)	0.811	/	3.21(.66)	0.218	/
한부모		96	2.42(.82)	2.20(.80)			1.96(.72)			3.23(.80)					
조부모		16	2.26(.65)	1.85(.57)			1.81(.64)			3.34(.66)					
본인 가장		5	2.24(1.12)	2.24(.84)			1.20(.63)			3.30(1.12)					
거주형태	우리 집	483	2.46(.72)	0.969	/	2.27(.71)	0.721	/	1.99(.64)	0.615	/	3.21(.70)	0.477	/	
	친척 집	14	2.50(.90)			2.40(.84)			2.15(.75)			3.19(.79)			
	기숙사	86	2.59(.65)			2.23(.65)			1.99(.55)			3.29(.60)			
	자취	39	2.50(.68)			2.43(.72)			2.09(.69)			3.17(.58)			
	기타	3	2.00(.53)			2.07(1.01)			1.72(.35)			3.56(.75)			
경제적 형편	아주 잘사는 편	9	2.13(.98)	2.213	/	2.07(.95)	0.620	/	1.85(.88)	0.804	/	2.78(1.14)	1.564	/	
	대체로 잘 사는 편	86	2.63(.72)			2.27(.69)			2.08(.69)			3.19(.68)			
	중간정도	426	2.47(.69)			2.28(.70)			2.00(.61)			3.24(.67)			
	대체로 못 사는 편	97	2.41(.77)			2.31(.74)			1.93(.63)			3.18(.72)			
	아주 못 사는 편	7	2.83(.55)			2.60(.59)			1.90(.27)			3.52(.30)			

\*p<.05, \*\*p<.01, \*\*\*p<.001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는 <표 12-1>, <표 12-2>와 같다.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중 경험유무, 시작동기, 소득사용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주된 근무시기, 주중근무일수, 일간근무시간, 월평균소득, 첫경험연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시소비는 경험유무( $t=4.648$ ,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험 없다(2.27)보다 경험 있다(2.56)가 높게 나타났다.

충동소비는 경험유무( $t=3.671$ ,  $p<.001$ ), 소득사용처( $F=2.880$ ,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험 없다(2.12)보다 경험 있다(2.35)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사용처는 이·미용비(2.9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방소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합리적 소비는 경험유무( $t=3.243$ ,  $p<.01$ ), 시작동기( $F=2.157$ ,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으며, 경험 없다(3.08)보다 경험 있다(3.28)가 높게 나타났다. 시작동기는 기타<sup>1)</sup>(3.8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1) 본 연구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사항으로 여행경비 마련, 부모님 용돈이나 선물 등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고 답변하였다.(24p)

<표 12-1>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변 수	구 분	N	과시소비			중등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경험유무	예(경험 있다.)	444	2.56(.71)	4.648***	-	2.35(.71)	3.671***	-	2.01(.64)	1.117	-	3.28(.67)	3.243**	-
	아니오(경험 없다.)	181	2.27(.68)			2.12(.66)			1.95(.61)			3.08(.71)		
시작동기	용돈을 벌기 위해	343	2.57(.69)	1.550	/	2.38(.71)	1.044	/	2.05(.64)	0.958	/	3.25(.65)	2.157*	/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36	2.42(.82)			2.24(.67)			1.77(.56)			3.49(.68)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	9	3.09(.50)			2.31(.30)			2.09(.49)			3.11(.44)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7	2.23(.85)			1.94(.99)			1.74(1.09)			3.86(.75)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6	2.73(.37)			2.03(.59)			2.06(.85)			3.31(.66)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	2.14(.87)			1.90(.57)			1.83(.70)			2.88(.80)		
	저축을 위해	12	2.57(.83)			2.33(.89)			2.04(.43)			3.35(.75)		
	새로운 일을 배우기 위해	10	2.50(.64)			2.34(.82)			1.93(.52)			3.22(.61)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	5	2.72(.99)			2.52(1.05)			1.97(.43)			3.40(.77)		
	기타	6	2.93(.71)			2.40(.77)			2.03(.74)			3.89(.63)		
소득 사용처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 여가생활비	71	2.49(.67)	1.409	/	2.34(.72)	2.880**	/	2.07(.67)	1.813	/	3.12(.54)	1.479	/
	선물이나 고가의 물건 구입 (휴대폰 등)	7	2.49(.78)			2.37(.96)			2.00(.86)			3.17(.56)		
	학비나 생활비	123	2.52(.70)			2.19(.66)			1.89(.61)			3.35(.64)		
	부모님이나 동생 용돈	18	2.28(.82)			2.23(.88)			1.89(.67)			3.44(.82)		
	이·미용비(화장품 구매 등 포함)	12	2.93(.82)			2.98(1.18)			2.36(.78)			3.32(.86)		
	옷, 신발 등 패션비용	134	2.66(.69)			2.46(.61)			2.09(.61)			3.33(.70)		
	음주 등 유흥비	24	2.66(.72)			2.48(.60)			2.01(.56)			3.03(.55)		
	이성친구와의 데이트비용	29	2.54(.74)			2.38(.71)			2.14(.64)			3.34(.78)		
	기타	26	2.44(.71)			2.16(.83)			1.86(.66)			3.18(.71)		

\*p<.05, \*\*p<.01, \*\*\*p<.001

<표 12-2>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

변 수	구 분	N	과시소비			중등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		
			M(SD)	t/F	S	M(SD)	t/F	S	M(SD)	t/F	S	M(SD)	t/F	S
주된 근무시기	학기 중 평일	78	2.60(.69)	0.716	/	2.37(.77)	0.736	/	2.03(.64)	1.402	/	3.29(.68)	0.324	/
	학기 중 주말	126	2.50(.67)			2.37(.64)			2.06(.60)			3.24(.59)		
	학기 중 평일, 주말 모두	65	2.57(.60)			2.39(.70)			2.07(.62)			3.24(.74)		
	방학 때만	95	2.52(.84)			2.24(.81)			2.02(.70)			3.29(.66)		
	방학 유무 관계없이 모두	80	2.66(.71)			2.38(.66)			1.86(.62)			3.34(.73)		
주중 근무일수	1~2일	144	2.50(.71)	2.283	/	2.38(.69)	1.300	/	2.02(.62)	0.774	/	3.29(.60)	0.661	/
	3~4일	108	2.73(.58)			2.39(.72)			2.09(.65)			3.35(.57)		
	5~6일	94	2.48(.74)			2.20(.71)			1.94(.64)			3.24(.83)		
	매일	46	2.59(.78)			2.39(.72)			2.01(.66)			3.23(.77)		
	정해져 있지 않음	52	2.51(.81)			2.38(.75)			1.98(.63)			3.20(.62)		
일간 근무시간	2시간 미만	16	2.55(.93)	0.097	/	2.28(.81)	0.213	/	1.88(.67)	0.464	/	3.03(.77)	1.194	/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70	2.55(.65)			2.32(.71)			2.05(.62)			3.32(.65)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67	2.56(.72)			2.36(.73)			2.00(.66)			3.33(.64)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13	2.60(.64)			2.38(.67)			2.05(.62)			3.26(.69)		
	8시간 이상	78	2.56(.71)			2.30(.73)			1.97(.62)			3.20(.68)		
월 평균소득	20만원 미만	59	2.42(.70)	1.914	/	2.42(.80)	1.335	/	2.04(.64)	1.517	/	3.21(.61)	1.323	/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120	2.53(.67)			2.29(.69)			2.06(.60)			3.34(.59)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112	2.67(.67)			2.44(.66)			1.97(.61)			3.32(.71)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80	2.49(.77)			2.21(.70)			1.88(.72)			3.13(.77)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4	2.53(.65)			2.38(.78)			2.16(.64)			3.37(.61)		
	100만원 이상	29	2.80(.89)			2.38(.67)			2.09(.58)			3.26(.66)		
첫 경험 연령	20세 미만	301	2.55(.73)	-0.630	-	2.37(.74)	0.971	-	2.01(.66)	-0.020	-	3.27(.67)	-0.591	-
	20세 이상	143	2.59(.66)			2.30(.64)			2.01(.58)			3.31(.67)		

\*p<.05, \*\*p<.01, \*\*\*p<.001

## 5.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화폐태도, 소비행태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계에서 화폐태도는 인정받기위한수단( $p<.01$ ), 성공의 상징( $p<.05$ ), 감정충족의 도구( $p<.01$ ), 불안의 원천( $p<.01$ )의 유의수준 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행태는 과시소비( $p<.01$ ), 충동소비( $p<.01$ ), 합리적 소비( $p<.01$ )가 유의수준 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태도의 인정받기위한 수단은 소비행태의 과시소비( $p<.01$ ) 충동소비( $p<.01$ ), 모방소비( $p<.01$ ), 합리적 소비( $p<.01$ ) 모두가 유의수준 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의 상징은 과시소비( $p<.01$ ), 충동소비( $p<.01$ ), 모방소비( $p<.01$ )에, 미래안정의 도구는 합리적 소비( $p<.01$ )에 유의수준 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충족의 도구는 과시소비( $p<.01$ ), 충동소비( $p<.01$ ), 모방소비( $p<.01$ )에, 불안의 원천은 과시소비( $p<.01$ ), 충동소비( $p<.01$ ), 모방소비( $p<.01$ ), 합리적 소비( $p<.01$ ) 모두에, 인식과 불신은 충동소비( $p<.01$ ), 합리적 소비( $p<.01$ )에 유의수준 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 값이 모두 0.9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공차한계 값을 구해야 할 것이고, 이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13>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아르바이트 경험	1										
(2)인정받기위한 수단	.127**	1									
(3)성공의 상징	.092*	.445**	1								
(4)미래안정의 도구	.062	.200**	.057	1							
(5)감정충족의 도구	.210**	.417**	.467**	.054	1						
(6)불안의 원천	.246**	.254**	.413**	.140**	.404**	1					
(7)인색과 불신	.070	.107**	.165**	.189**	.196**	.358**	1				
(8)과시소비	.183**	.632**	.341**	.075	.363**	.180**	.003	1			
(9)충동소비	.146**	.421**	.379**	-.019	.450**	.259**	.207**	.465**	1		
(10)모방소비	.045	.537**	.469**	.074	.414**	.202**	.109	.491**	.588**	1	
(11)합리적 소비	.129**	.217**	-.033	.482**	.066	.253**	.284**	.128**	-.056	.008	1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 아르바이트 경험(유=1, 무=0)

6. 학교 급별에 따라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하고, 화폐태도의 하위요인인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미래안정의 도구, 감정충족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색과 불신을 독립변수로, 소비행태의 하위요인인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급별에 따라 화폐태도가 소비행태(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

화폐태도가 소비행태(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학교 급별에 따라 화폐태도가 소비행태(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값	공차한계
고등학생	상수	.739	.196	-	3.762	-
	인정받기위한 수단	.546	.054	.534	10.177 ***	.693
	성공의 상징	.067	.064	.062	1.053	.553
	미래안정의 도구	-.006	.045	-.006	-.128	.932
	감정충족의 도구	.142	.053	.114	2.674 **	.661
	불안의 원천	-.031	.049	-.035	-.628	.627
	인색과 불신	-.015	.047	-.015	-.318	.856
R=.629, R <sup>2</sup> =.396, 수정된 R <sup>2</sup> =.384, F=34.581, p=.000, Durbin-Watson=1.995						
대학생	상수	1.339	.188	-	7.139	-
	인정받기위한 수단	.592	.049	.602	11.964 ***	.739
	성공의 상징	.065	.057	.059	1.141	.704
	미래안정의 도구	-.049	.037	-.060	-1.324	.902
	감정충족의 도구	.084	.044	.100	1.925	.698
	불안의 원천	.004	.043	.005	.091	.719
	인색과 불신	-.162	.052	-.159	-3.243 *	.778
R=.671, R <sup>2</sup> =.450, 수정된 R <sup>2</sup> =.439, F=40.127, p=.000, Durbin-Watson=2.181						

\*p<.05, \*\*p<.01, \*\*\*p<.001

고등학생, 대학생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이 각각 1.995, 2.181로 그 수치가 2에 가깝

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F값은 각각 34.581, 40.127, 유의확률은 모두  $p=.000$ 으로 회귀선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629, 0.671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하여 각각 39.6%( $R^2=0.396$ ), 45.0%( $R^2=0.450$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t=10.177$ ,  $p=.000$ ), 감정충족의 도구( $t=2.674$ ,  $p=.001$ )가 과시소비에 정(+)<sup>의</su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t=11.964$ ,  $p=.000$ )이 과시소비에 정(+)<sup>의</sup> 영향을 미치고, 인색과 불신( $t=-3.243$ ,  $p=.011$ )이 부(-)<sup>의</su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 급별에 따라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충동소비)에 미치는 영향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충동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학교 급별에 따라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충동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값	공차한계
고등학생	상수	.513	.209	-	2.452	-
	인정받기위한 수단	.274	.057	.261	4.802 ***	.693
	성공의 상징	.161	.068	.145	2.387 *	.553
	미래안정의 도구	-.107	.048	-.104	-2.223 *	.932
	감정충족의 도구	.319	.057	.315	5.646 ***	.661
	불안의 원천	-.043	.052	-.047	-.822	.627
	인색과 불신	.116	.050	.113	2.298 *	.856
R=.591, $R^2=.349$ , 수정된 $R^2=.337$ , F=28.347, $p=.000$ , Durbin-Watson=1.685						
대학생	상수	.796	.207	-	3.856	-
	인정받기위한 수단	.240	.054	.258	4.412 ***	.739
	성공의 상징	.119	.062	.114	1.903	.704
	미래안정의 도구	-.104	.041	-.135	-2.543 *	.902
	감정충족의 도구	.158	.048	.195	3.234 **	.698
	불안의 원천	.013	.047	.016	.275	.719
	인색과 불신	.177	.057	.178	3.115 **	.778
R=.505, $R^2=.255$ , 수정된 $R^2=.240$ , F=16.773, $p=.000$ , Durbin-Watson=1.933						

\* $p<.05$ , \*\* $p<.01$ , \*\*\* $p<.001$

고등학생, 대학생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이 각각 1.685, 1.933으로 그 수치가 2에 가

값이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F값은 각각 28.347, 16.773, 유의확률은 모두  $p=.000$ 으로 회귀선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591, 0.505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하여 각각 34.9%( $R^2=0.349$ ), 25.5%( $R^2=0.255$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t=4.802$ ,  $p=.000$ ), 성공의 상징( $t=2.387$ ,  $p=.018$ ), 감정충족의 도구( $t=5.646$ ,  $p=.000$ ), 인색과 불신( $t=.050$ ,  $p=.022$ )이 충동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미래안정의 도구( $t=-2.223$ ,  $p=.027$ )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t=4.412$ ,  $p=.000$ ), 감정충족의 도구( $t=3.234$ ,  $p=.001$ ), 인색과 불신( $t=3.115$ ,  $p=.002$ )이 충동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미래안정의 도구( $t=-2.543$ ,  $p=.012$ )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 급별에 따라 화폐태도가 소비행태(모방소비)에 미치는 영향

화폐태도가 소비행태(모방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학교 급별에 따라 화폐태도가 소비행태(모방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값	공차한계
고등학생	상수	.282	.171	-	1.648	-
	인정받기위한 수단	.371	.047	.401	7.931 ***	.693
	성공의 상징	.240	.055	.245	4.334 ***	.553
	미래안정의 도구	-.001	.039	-.001	-.013	.932
	감정충족의 도구	.186	.046	.209	4.026 ***	.661
	불안의 원천	-.067	.043	-.083	-1.555	.627
	인색과 불신	.007	.041	.008	.177	.856
R=.661, $R^2=.437$ , 수정된 $R^2=.427$ , F=41.039, $p=.000$ , Durbin-Watson=1.940						
대학생	상수	.560	.184	-	3.040	-
	인정받기위한 수단	.296	.049	.344	6.097 ***	.739
	성공의 상징	.226	.056	.235	4.063 ***	.704
	미래안정의 도구	-.023	.036	-.032	-.630	.902
	감정충족의 도구	.094	.043	.127	2.190 *	.698
	불안의 원천	-.029	.042	-.040	-.699	.719
	인색과 불신	.032	.051	.035	.633	.778
R=.553, $R^2=.306$ , 수정된 $R^2=.292$ , F=21.634, $p=.000$ , Durbin-Watson=2.003						

\* $p<.05$ , \*\* $p<.01$ , \*\*\* $p<.001$

고등학생, 대학생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이 각각 1.940, 2.003으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F값은 각각 41.039, 21.634, 유의확률은 모두  $p=.000$ 으로 회귀선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661, 0.553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하여 각각 43.7%( $R^2=0.437$ ), 30.6%( $R^2=0.306$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t=7.931$ ,  $p=.000$ ), 성공의 상징( $t=4.334$ ,  $p=.000$ ), 감정충족의 도구( $t=4.026$ ,  $p=.000$ )가 모방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났고, 대학생도 인정받기위한 수단( $t=6.097$ ,  $p=.000$ ), 성공의 상징( $t=4.063$ ,  $p=.000$ ), 감정충족의 도구( $t=2.190$ ,  $p=.029$ )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교 급별에 따라 화폐태도가 소비행태(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화폐태도가 소비행태(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고등학생, 대학생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이 각각 2.008, 1.950으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F값은 각각 29.447, 22.283, 유의확률은 모두  $p=.000$ 으로 회귀선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598, 0.559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하여 각각 35.8%( $R^2=0.358$ ), 31.3%( $R^2=0.313$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t=3.088$ ,  $p=.002$ ), 미래안정의 도구( $t=8.736$ ,  $p=.000$ ), 불안의 원천( $t=3.286$ ,  $p=.001$ ), 인식과 불신( $t=4.968$ ,  $p=.000$ )이 합리적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성공의 상징( $t=-3.802$ ,  $p=.000$ )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t=3.256$ ,  $p=.001$ ), 미래안정의 도구( $t=8.025$ ,  $p=.000$ ), 불안의 원천( $t=3.698$ ,  $p=.000$ )이 합리적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성공의 상징( $t=-3.612$ ,  $p=.000$ )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학교 급별에 따라 화폐태도가 소비행태(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값	공차한계
고등학생	상수	1.253	.197	-	6.359	-
	인정받기위한 수단	.166	.054	.167	3.088 **	.693
	성공의 상징	-.242	.064	-.230	-3.802 ***	.553
	미래안정의 도구	.396	.045	.407	8.736 ***	.932
	감정충족의 도구	-.077	.053	-.080	-1.451	.661
	불안의 원천	.162	.049	.187	3.286 **	.627
	인색과 불신	.236	.048	.242	4.968 ***	.856
R=.598, R <sup>2</sup> =.358, 수정된 R <sup>2</sup> =.346, F=29.447, p=.000, Durbin-Watson=2.008						
대학생	상수	1.800	.198	-	9.089	-
	인정받기위한 수단	.170	.052	.183	3.256 **	.739
	성공의 상징	-.216	.060	-.208	-3.612 ***	.704
	미래안정의 도구	.314	.039	.409	8.025 ***	.902
	감정충족의 도구	.012	.046	.015	.250	.698
	불안의 원천	.166	.045	.211	3.698 ***	.719
	인색과 불신	.050	.054	.050	.913	.778
R=.559, R <sup>2</sup> =.313, 수정된 R <sup>2</sup> =.299, F=22.283, p=.000, Durbin-Watson=1.950						

\*p<.05, \*\*p<.01, \*\*\*p<.001

## 7.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화폐태도의 하위요인인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미래안정의 도구, 감정충족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색과 불신을 독립변수로, 소비행태의 하위요인인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과시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값	공차한계
경험 유	상수	1.199	.171	-	7.024	-
	인정받기위한 수단	.571	.045	.558	12.701 ***	.721
	성공의 상징	.085	.050	.076	1.688	.679
	미래안정의 도구	-.035	.035	-.039	-1.010	.918
	감정충족의 도구	.082	.040	.091	2.040	.707
	불안의 원천	-.012	.038	-.013	-.304	.717
	인색과 불신	-.116	.044	-.107	-2.653 **	.849
R=.626, R <sup>2</sup> =.391, 수정된 R <sup>2</sup> =.383, F=46.820, p=.000, Durbin-Watson=2.064						
경험 무	상수	.806	.224	-	3.593	-
	인정받기위한 수단	.586	.061	.622	9.676 ***	.732
	성공의 상징	-.023	.074	-.023	-3.15	.589
	미래안정의 도구	-.022	.052	-.024	-.423	.925
	감정충족의 도구	.168	.067	.172	2.501 *	.642
	불안의 원천	-.024	.056	-.027	-.421	.718
	인색과 불신	-.029	.054	-.032	-.535	.837
R=.688, R <sup>2</sup> =.474, 수정된 R <sup>2</sup> =.455, F=26.093, p=.000, Durbin-Watson=1.797						

\*p<.05, \*\*p<.01, \*\*\*p<.001

아르바이트 경험 유, 무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이 각각 2.064, 1.797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F값은 각각 46.820, 26.093, 유의확률은 모두 p=.000으로 회귀선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626, .688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하여 각각 39.1%(R<sup>2</sup>=0.391), 47.4%(R<sup>2</sup>=0.47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경험 유’의 화폐태도 중 인정받기위한 수단(t=12.701, p=.000)이 과시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인색과 불신(t=-2.653, p=.008)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무’는 인정받기위한 수단(t=9.676, p=.000)이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충동소비)에 미치는 영향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충동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충동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값	공차한계
경험 유	상수	.749	.188	-	3.996	-
	인정받기위한 수단	.294	.049	.287	5.949 ***	.721
	성공의 상징	.169	.055	.152	3.065 **	.679
	미래안정의 도구	-.110	.038	-.123	-2.871 **	.918
	감정충족의 도구	.182	.044	.201	4.120 ***	.707
	불안의 원천	-.017	.042	-.020	-.412	.717
	인색과 불신	.119	.048	.110	2.483 *	.849
R=.518, R <sup>2</sup> =.268, 수정된 R <sup>2</sup> =.258, F=26.702, p=.000, Durbin-Watson=1.796						
경험 무	상수	.468	.229	-	2.049	-
	인정받기위한 수단	.182	.062	.201	2.953 **	.732
	성공의 상징	.014	.075	.014	.185	.589
	미래안정의 도구	-.096	.053	-.109	-1.798	.925
	감정충족의 도구	.411	.068	.437	6.009 ***	.642
	불안의 원천	.046	.057	.056	.815	.718
	인색과 불신	.155	.055	.178	2.794 **	.837
R=.639, R <sup>2</sup> =.409, 수정된 R <sup>2</sup> =.338, F=20.057, p=.000, Durbin-Watson=1.958						

\*p<.05, \*\*p<.01, \*\*\*p<.001

아르바이트 경험 유, 무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이 각각 2.064, 1.958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F값은 각각 26.702, 20.057, 유의확률은 모두 p=.000으로 회귀선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518, .639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하여 각각 26.8%(R<sup>2</sup>=0.268), 40.9%(R<sup>2</sup>=0.40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경험 유’의 화폐태도 중 인정받기위한 수단(t=12.701, p=.000), 성공의 상징(t=3.065, p=.002), 인색과 불신(t=2.483, p=.013)이 충동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미래안정의 도구(t=-2.871, p=.004)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며, ‘경험 무’는 인정받기위한 수단( $t=2.953$ ,  $p=.004$ ), 감정충족의 도구( $t=6.009$ ,  $p=.000$ ), 인식과 불신( $t=2.794$ ,  $p=.006$ )이 충동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모방소비)에 미치는 영향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모방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모방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값	공차한계
경험 유	상수	.451	.160	-	2.822	-
	인정받기위한 수단	.337	.042	.367	8.004 ***	.721
	성공의 상징	.247	.047	.248	5.250 ***	.679
	미래안정의 도구	-.014	.033	-.018	-.430	.918
	감정충족의 도구	.110	.038	.135	2.913 **	.707
	불안의 원천	-.043	.035	-.056	-1.226	.717
	인식과 불신	.011	.041	-1.226	.274	.849
	R=.580, $R^2=.337$ , 수정된 $R^2=.328$ , F=36.988, $p=.000$ , Durbin-Watson=2.014					
경험 무	상수	.241	.195	-	1.235	-
	인정받기위한 수단	.326	.053	.388	6.177 ***	.732
	성공의 상징	.197	.064	.214	3.056 **	.589
	미래안정의 도구	-.006	.046	-.008	-.140	.925
	감정충족의 도구	.246	.058	.283	4.218 ***	.642
	불안의 원천	-.039	.049	-.050	-.792	.718
	인식과 불신	.038	.047	.047	.794	.837
	R=.705, $R^2=.497$ , 수정된 $R^2=.479$ , F=28.621, $p=.000$ , Durbin-Watson=2.054					

\* $p<.05$ , \*\* $p<.01$ , \*\*\* $p<.001$

아르바이트 경험 유, 무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이 각각 2.014, 2.054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F값은 각각 36.988, 28.621, 유의확률은 모두  $p=.000$ 으로 회귀선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580, .705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하여 각각 33.7%( $R^2=0.337$ ),

49.7%(R<sup>2</sup>=0.49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경험 유’의 화폐태도 중 인정받기위한 수단(t=8.004, p=.000), 성공의 상징(t=5.250, p=.000), 감정충족의 도구(t=2.913, p=.004)가, ‘경험 무’는 인정받기위한 수단(t=6.177, p=.000), 성공의 상징(t=3.056, p=.003), 감정충족의 도구(t=4.218, p=.000)가 모방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beta$	t값	공차한계
경험 유	상수	1.685	.170	-	9.928	-
	인정받기위한 수단	.195	.045	.203	4.366 ***	.721
	성공의 상징	-.265	.050	-.254	-5.298 ***	.679
	미래안정의 도구	.344	.035	.409	9.925 ***	.918
	감정충족의 도구	-.024	.040	-.028	-.592	.707
	불안의 원천	.131	.038	.162	3.479 ***	.717
	인색과 불신	.140	.043	.138	3.233 **	.849
R=.566, R <sup>2</sup> =.320, 수정된 R <sup>2</sup> =.311, F=34.306, p=.000, Durbin-Watson=2.008						
경험 무	상수	1.213	.255	-	4.755	-
	인정받기위한 수단	.135	.069	.138	1.955	.732
	성공의 상징	-.169	.084	-.159	-2.013 *	.589
	미래안정의 도구	.364	.059	.385	6.113 ***	.925
	감정충족의 도구	-.088	.076	-.087	-1.154	.642
	불안의 원천	.220	.064	.247	3.465 **	.718
	인색과 불신	.199	.062	.212	3.213 **	.837
R=.603, R <sup>2</sup> =.363, 수정된 R <sup>2</sup> =.341, F=16.534, p=.000, Durbin-Watson=2.030						

\*p<.05, \*\*p<.01, \*\*\*p<.001

아르바이트 경험 유, 무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이 각각 2.008, 2.030으로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F값은 각각 34.306, 16.534, 유의확률은 모두 p=.000으로 회귀선 모

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566, .603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하여 각각 32.0%( $R^2=0.320$ ), 36.3%( $R^2=0.363$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경험 유’의 화폐태도 중 인정받기위한 수단( $t=4.366$ ,  $p=.000$ ), 미래안정의 도구( $t=9.925$ ,  $p=.000$ ), 불안의 원천( $t=3.479$ ,  $p=.001$ ), 인식과 불신( $t=3.233$ ,  $p=.001$ )이 합리적 소비에 정(+)의 영향을, 성공의 상징( $t=5.298$ ,  $p=.000$ )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무’는 미래안정의 도구( $t=6.113$ ,  $p=.000$ ), 불안의 원천( $t=3.465$ ,  $p=.001$ ), 인식과 불신( $t=3.213$ ,  $p=.001$ )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시켜서 산출된 회귀계수( $\beta$ )가 2단계의 회귀계수보다 낮게 나타나야 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화폐태도의 하위요인별로 더미변수화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2단계에서는 화폐태도의 하위요인별로 소비행태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화폐태도의 하위요인별로 더미변수화한 아르바이트 경험유무를 함께 투입시켜 소비행태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값을 토대로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화폐태도(인정받기위한 수단)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화폐태도(인정받기위한 수단)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

효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화폐태도(인정받기위한 수단)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화폐태도)	매개변수	종속변수 (소비행태)	구 분	매개효과 검정단계	B	표준오차	$\beta$	t값	R <sup>2</sup>
인정받기 위한 수단	아르바이트 경험	과시소비	고등학생	1단계	.086	.038	.125	2.260 *	.016
				2단계	.625	.045	.611	13.863 ***	.374
				3단계 <sup>a</sup>	.616	.045	.603	13.591 ***	
				3단계 <sup>b</sup>	.102	.066	.069	1.549	.378
			대학생	1단계	.000	.024	.000	-.007	.000
				2단계	.632	.044	.643	14.519 ***	.413
				3단계 <sup>a</sup>	.632	.043	.643	14.679 ***	
				3단계 <sup>b</sup>	.283	.103	.121	2.755 **	.428
		충동소비	고등학생	1단계	.086	.038	.125	2.260 *	.016
				2단계	.472	.052	.450	9.040 ***	.202
				3단계 <sup>a</sup>	.457	.052	.436	8.744 ***	
				3단계 <sup>b</sup>	.171	.076	.113	2.257 *	.215
			대학생	1단계	.000	.024	.000	-.007	.000
				2단계	.342	.050	.368	6.850 ***	.136
				3단계 <sup>a</sup>	.342	.050	.368	6.840 ***	
				3단계 <sup>b</sup>	.032	.119	.015	.270	.136
		모방소비	고등학생	1단계	.086	.038	.125	2.260 *	.016
				2단계	.541	.042	.586	12.989 ***	.344
				3단계 <sup>a</sup>	.541	.042	.586	12.857 ***	
				3단계 <sup>b</sup>	.005	.061	.004	.078	.344
			대학생	1단계	.000	.024	.000	-.007	.000
				2단계	.413	.044	.481	9.484 ***	.231
				3단계 <sup>a</sup>	.413	.044	.481	9.473 ***	
				3단계 <sup>b</sup>	-.056	.104	-.027	-.537	.232
합리적 소비	고등학생	1단계	.086	.038	.125	2.260 *	.016		
		2단계	.182	.055	.183	3.339 **	.033		
		3단계 <sup>a</sup>	.169	.055	.170	3.086 **			
		3단계 <sup>b</sup>	.152	.079	.106	1.925	.044		
	대학생	1단계	.000	.024	.000	-.007	.000		
		2단계	.213	.052	.230	4.079 ***	.053		
		3단계 <sup>a</sup>	.213	.052	.230	4.072 ***			
		3단계 <sup>b</sup>	-.032	.125	-.014	-.253	.053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 아르바이트 경험(유=1, 무=0)

3) a=독립변수, b=매개변수

과시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2.260(p<.05), 2단계에 13.863(p<.001)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 $\beta$ )는 2단계 .611에서 3단계 .063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충동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2.260( $p < .05$ ), 2단계에 9.040( $p < .001$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귀계수는 2단계 .450에서 3단계 .436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소비에서 고등학생의 t값은 1단계에 2.260( $p < .05$ ), 2단계에 3.339( $p < .01$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귀계수는 2단계 .183에서 3단계 .170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모방소비는 2단계와 3단계에서 회귀계수의 변화가 없었고, 대학생의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에서는 1단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화폐태도(성공의 상징)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화폐태도(성공의 상징)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는 <표 23>과 같다.

과시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3.373( $p < .01$ ), 2단계에 7.174( $p < .001$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 $\beta$ )는 2단계 .371에서 3단계 .357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3.373( $p < .01$ ), 2단계에 8.381( $p < .001$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귀계수는 2단계 .423에서 3단계 .406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모방소비는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계수가 더 증가하였고, 합리적 소비는 2단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대학생의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에서는 1단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화폐태도(성공의 상징)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 효과

독립변수 (화폐태도)	매개변수	종속변수 (소비행태)	구 분	매개효과 검정단계	B	표준오차	$\beta$	t값	R <sup>2</sup>
성공의 상징	아르바이트 경험	과시소비	고등학생	1단계	.135	.040	.185	3.373 **	.034
				2단계	.402	.057	.371	7.174 ***	.138
				3단계 <sup>a</sup>	.386	.057	.357	6.789 ***	.144
				3단계 <sup>b</sup>	.115	.078	.078	1.486	
			대학생	1단계	-.004	.027	-.009	-.162	.000
				2단계	.357	.060	.325	5.941 ***	.106
				3단계 <sup>a</sup>	.358	.060	.326	6.003 ***	.121
				3단계 <sup>b</sup>	.289	.127	.123	2.273 *	
		충동소비	고등학생	1단계	.135	.040	.185	3.373 **	.034
				2단계	.470	.057	.423	8.381 ***	.179
				3단계 <sup>a</sup>	.451	.057	.406	7.934 ***	.187
				3단계 <sup>b</sup>	.139	.078	.092	1.796	
			대학생	1단계	-.004	.027	-.009	-.162	.000
				2단계	.342	.057	.329	6.034 ***	.109
				3단계 <sup>a</sup>	.342	.057	.330	6.028 ***	.109
				3단계 <sup>b</sup>	.039	.121	.017	.319	
		모방소비	고등학생	1단계	.135	.040	.185	3.373 **	.034
				2단계	.491	.048	.503	10.443 ***	.253
				3단계 <sup>a</sup>	.494	.048	.506	10.312 ***	.253
				3단계 <sup>b</sup>	-.022	.065	-.017	-.341	
			대학생	1단계	-.004	.027	-.009	-.162	.000
				2단계	.408	.050	.425	8.126 ***	.181
				3단계 <sup>a</sup>	.408	.050	.425	8.110 ***	.181
				3단계 <sup>b</sup>	-.048	.107	-.023	-.448	
합리적 소비	고등학생	1단계	.135	.040	.185	3.373 **	.034		
		2단계	-.045	.059	-.042	-.760	.002		
		3단계 <sup>a</sup>	-.072	.059	-.068	-1.212	.021		
		3단계 <sup>b</sup>	.201	.081	.140	2.484 *			
	대학생	1단계	-.004	.027	-.009	-.162	.000		
		2단계	-.009	.060	-.009	-.152	.000		
		3단계 <sup>a</sup>	-.009	.060	-.009	-.154	.000		
		3단계 <sup>b</sup>	-.032	.128	-.014	-.250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 아르바이트 경험(유=1, 무=0)

3) a=독립변수, b=매개변수

### 3) 화폐태도(미래안정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 효과

화폐태도(미래안정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를 <표 24>와 같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1단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화폐태도(미래안정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화폐태도)	매개변수	종속변수 (소비행태)	구 분	매개효과 검정단계	B	표준오차	$\beta$	t값	R <sup>2</sup>
미래 안정의 도구	아르바이트 경험	과시소비	고등학생	1단계	.033	.038	.049	.877	.002
				2단계	.086	.055	.086	1.547	.007
				3단계 <sup>a</sup>	.079	.055	.079	1.434	
			3단계 <sup>b</sup>	.207	.081	.140	2.543 *	.027	
			대학생	1단계	.013	.020	.036	.632	.001
				2단계	.039	.047	.048	.836	.002
		3단계 <sup>a</sup>		.036	.047	.044	.764		
		3단계 <sup>b</sup>	.278	.135	.119	2.067 *	.016		
		충동소비	고등학생	1단계	.033	.038	.049	.877	.002
				2단계	-.041	.056	-.040	-.713	.002
				3단계 <sup>a</sup>	-.049	.056	-.048	-.872	
			3단계 <sup>b</sup>	.257	.083	.169	3.077 **	.030	
			대학생	1단계	.013	.020	.036	.632	.001
				2단계	-.006	.045	-.008	-.140	.000
		3단계 <sup>a</sup>		-.007	.045	-.009	-.149		
		3단계 <sup>b</sup>	.033	.128	.015	.254	.000		
		모방소비	고등학생	1단계	.033	.038	.049	.877	.002
				2단계	.065	.050	.072	1.301	.005
				3단계 <sup>a</sup>	.062	.050	.069	1.236	
			3단계 <sup>b</sup>	.098	.074	.073	1.320	.011	
			대학생	1단계	.013	.020	.036	.632	.001
				2단계	.054	.041	.075	1.308	.006
		3단계 <sup>a</sup>		.054	.041	.077	1.325		
		3단계 <sup>b</sup>	-.062	.118	-.030	-.523	.007		
합리적 소비	고등학생	1단계	.033	.038	.049	.877	.002		
		2단계	.471	.047	.485	9.948 ***	.235		
		3단계 <sup>a</sup>	.466	.047	.480	9.887 ***			
	3단계 <sup>b</sup>	.149	.070	.104	2.135 *	.246			
	대학생	1단계	.013	.020	.036	.632	.001		
		2단계	.370	.039	.481	9.488 ***	.231		
3단계 <sup>a</sup>		.371	.039	.482	9.496 ***				
3단계 <sup>b</sup>	-.071	.112	-.032	-.630	.232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 아르바이트 경험(유=1, 무=0)

3) a=독립변수, b=매개변수

4) 화폐태도(감정충족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화폐태도(감정충족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화폐태도(감정충족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화폐태도)	매개변수	종속변수 (소비행태)	구 분	매개효과 검정단계	B	표준오차	$\beta$	t값	R <sup>2</sup>
감정 충족의 도구	아르바이트 경험	과시소비	고등학생	1단계	.188	.036	.280	5.237***	.079
				2단계	.380	.053	.384	7.457***	.147
				3단계 <sup>a</sup>	.369	.053	.373	6.946***	.149
				3단계 <sup>b</sup>	.059	.079	.040	.739	
			대학생	1단계	-.001	.021	-.002	-.040	.000
				2단계	.267	.046	.316	5.753***	.100
				3단계 <sup>a</sup>	.267	.046	.316	5.796***	
				3단계 <sup>b</sup>	.284	.128	.121	2.222*	.114
		충동소비	고등학생	1단계	.188	.036	.280	5.237***	.079
				2단계	.506	.051	.498	10.312***	.248
				3단계 <sup>a</sup>	.497	.051	.490	9.724***	.249
				3단계 <sup>b</sup>	.045	.076	.030	.590	
			대학생	1단계	-.001	.021	-.002	-.040	.000
				2단계	.307	.043	.384	7.199***	.148
				3단계 <sup>a</sup>	.307	.043	.384	7.188***	
				3단계 <sup>b</sup>	.034	.118	.015	.285	.148
		모방소비	고등학생	1단계	.188	.036	.280	5.237***	.079
				2단계	.420	.046	.470	9.550***	.221
				3단계 <sup>a</sup>	.434	.046	.486	9.498***	.224
				3단계 <sup>b</sup>	-.079	.068	-.060	-1.163	
			대학생	1단계	-.001	.021	-.002	-.040	.000
				2단계	.264	.040	.358	6.621***	.128
				3단계 <sup>a</sup>	.264	.040	.358	6.612***	
				3단계 <sup>b</sup>	-.054	.111	-.027	-.492	.129
합리적 소비	고등학생	1단계	.188	.036	.280	5.237***	.079		
		2단계	-.011	.055	-.011	-.199	.000		
		3단계 <sup>a</sup>	-.049	.055	-.051	-.880			
		3단계 <sup>b</sup>	.203	.083	.141	2.452*	.019		
	대학생	1단계	-.001	.021	-.002	-.040	.000		
		2단계	.095	.046	.120	2.082*	.014		
		3단계 <sup>a</sup>	.095	.046	.120	2.078*			
		3단계 <sup>b</sup>	-.031	.127	-.014	-.245	.014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 아르바이트 경험(유=1, 무=0)

3) a=독립변수, b=매개변수

과시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5.237(p<.001), 2단계에 7.457(p<.001)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 $\beta$ )는 2단계 .384에서 3단계 .373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5.237(p<.001), 2단계에 10.312(p<.001)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귀계수는 2단계 .498에서 3단계 .490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모방소비는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계수가 증가하였고, 합리적 소비는 2단계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대학생의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에서는 1단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화폐태도(불안의 원천)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화폐태도(불안의 원천)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화폐태도(불안의 원천)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화폐태도)	매개변수	종속변수 (소비행태)	구 분	매개효과 검정단계	B	표준오차	$\beta$	t값	R <sup>2</sup>
불안의 원천	아르바이트 경험	과시소비	고등학생	1단계	.129	.033	.213	3.915***	.045
				2단계	.177	.050	.199	3.642***	.040
				3단계 <sup>a</sup>	.157	.050	.176	3.165**	.050
				3단계 <sup>b</sup>	.157	.082	.106	1.912	
			대학생	1단계	.026	.021	.072	1.255	.005
				2단계	.074	.048	.088	1.528	.008
				3단계 <sup>a</sup>	.067	.048	.080	1.387	
				3단계 <sup>b</sup>	.268	.135	.115	1.995*	.021
		충동소비	고등학생	1단계	.129	.033	.213	3.915***	.045
				2단계	.244	.050	.267	4.973***	.071
				3단계 <sup>a</sup>	.222	.050	.243	4.435***	.084
				3단계 <sup>b</sup>	.175	.083	.115	2.109*	
			대학생	1단계	.026	.021	.072	1.255	.005
				2단계	.172	.045	.218	3.854***	.047
				3단계 <sup>a</sup>	.172	.045	.218	3.839***	
				3단계 <sup>b</sup>	-.003	.126	-.001	-.024	.047
		모방소비	고등학생	1단계	.129	.033	.213	3.915***	.045
				2단계	.199	.045	.247	4.583***	.061
				3단계 <sup>a</sup>	.195	.045	.242	4.375***	
				3단계 <sup>b</sup>	.034	.074	.025	.454	.062
			대학생	1단계	.026	.021	.072	1.255	.005
				2단계	.111	.042	.152	2.655**	.023
				3단계 <sup>a</sup>	.113	.042	.155	2.694**	
				3단계 <sup>b</sup>	-.079	.117	-.039	-.673	.025
합리적 소비	고등학생	1단계	.129	.033	.213	3.915***	.045		
		2단계	.161	.049	.186	3.397**	.035		
		3단계 <sup>a</sup>	.144	.049	.166	2.978**			
		3단계 <sup>b</sup>	.132	.080	.092	1.638	.043		
	대학생	1단계	.026	.021	.072	1.255	.005		
		2단계	.224	.044	.284	5.120***	.081		

				3단계 <sup>a</sup>	.226	.044	.286	5.147 ***	
				3단계 <sup>b</sup>	-.078	.123	-.035	-.631	.082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 아르바이트 경험(유=1, 무=0)

3) a=독립변수, b=매개변수

과시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3.915(p<.001), 2단계에 3.642(p<.001)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 $\beta$ )는 2단계 .199에서 3단계 .176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3.915(p<.001), 2단계에 4.973(p<.001)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귀계수는 2단계 .267에서 3단계 .243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3.915(p<.001), 2단계에 4.583(p<.001)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귀계수는 2단계 .247에서 3단계 .242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3.915(p<.001), 2단계에 3.397(p<.01)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귀계수는 2단계 .186에서 3단계 .166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의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에서는 1단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화폐태도(인색과 불신)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화폐태도(인색과 불신)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는 <표 27>과 같다.

충동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2.188(p<.05), 2단계에 3.535(p<.001)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귀계수는 2단계 .193에서 3단계 .176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소비는 고등학생의 t값이 1단계에 2.188(p<.05), 2단계에 6.699(p<.001)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귀계수는 2단계 .350에서 3단계 .339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 아르바이트 경험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과시소비는 2단계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방소비는 2단계에서 3단계로의 회귀계수가 줄어들었으나 3단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대학생의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에서는 1단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화폐태도(인색과 불신)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화폐태도)	매개변수	종속변수 (소비행태)	구 분	매개효과 검정단계	B	표준오차	$\beta$	t값	R <sup>2</sup>
인색과 불신	아르바이트 경험	과시소비	고등학생	1단계	.082	.038	.121	2.188 *	.015
				2단계	.087	.056	.087	1.559	.007
				3단계 <sup>a</sup>	.070	.056	.070	1.264	
				3단계 <sup>b</sup>	.200	.082	.136	2.442 *	.026
			대학생	1단계	.025	.026	.055	.952	.003
				2단계	-.101	.060	-.096	-1.669	.009
				3단계 <sup>a</sup>	-.108	.060	-.103	-1.798	
				3단계 <sup>b</sup>	.295	.134	.126	2.201 *	.025
		충동소비	고등학생	1단계	.082	.038	.121	2.188 *	.015
				2단계	.199	.056	.193	3.535 ***	.037
				3단계 <sup>a</sup>	.181	.056	.176	3.219 **	
				3단계 <sup>b</sup>	.221	.083	.146	2.671 **	.058
			대학생	1단계	.025	.026	.055	.952	.003
				2단계	.239	.056	.240	4.282 ***	.058
				3단계 <sup>a</sup>	.239	.056	.240	4.267 ***	
				3단계 <sup>b</sup>	.003	.125	.001	.021	.058
		모방소비	고등학생	1단계	.082	.038	.121	2.188 *	.015
				2단계	.104	.051	.115	2.072 *	.013
				3단계 <sup>a</sup>	.097	.051	.107	1.919	
				3단계 <sup>b</sup>	.085	.074	.064	1.145	.017
			대학생	1단계	.025	.026	.055	.952	.003
				2단계	.095	.053	.104	1.803	.011
				3단계 <sup>a</sup>	.097	.053	.106	1.830	
				3단계 <sup>b</sup>	-.068	.118	-.033	-.576	.012
합리적 소비	고등학생	1단계	.082	.038	.121	2.188 *	.015		
		2단계	.342	.051	.350	6.699 ***	.122		
		3단계 <sup>a</sup>	.332	.051	.339	6.469 ***			
		3단계 <sup>b</sup>	.124	.075	.086	1.639	.130		
	대학생	1단계	.025	.026	.055	.952	.003		
		2단계	.211	.056	.212	3.748 ***	.045		
		3단계 <sup>a</sup>	.212	.056	.213	3.763 ***			
		3단계 <sup>b</sup>	-.058	.125	-.026	-.461	.046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 아르바이트 경험(유=1, 무=0)

3) a=독립변수, b=매개변수

## V. 결론

###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を対象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비합리적 소비성향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각 350부씩 총 700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지와 미회수분을 제외한 총 634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화폐태도는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미래안정의 도구, 감정충족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식과 불신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소비행태는 과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분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인별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르바이트 실태는 어떠한지,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에 사회인구학적 요인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르바이트 경험과 화폐태도, 소비행태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고등학생과 대학생 두 집단에 대해서 비교연구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의 52.5%가, 대학생의 90.1%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고, 고등학생의 78.2%, 대학생의 76.6%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소득사용처는 고등학생이 옷, 신발 등 패션비용에 사용하는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은 학비나 생활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다. 주된 근무시기는 학기 중 주말에 하는 경우가 고등학생의 27.6%, 대학생의 28.8%로 가장 많았다. 주중 근무일수는 1~2일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

생의 28.8%, 대학생의 34.7%에 해당한다. 일간 근무시간은 고등학생이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하는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이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하는 경우가 30.3%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소득은 고등학생이 2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3.5%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이 60만 원 이상~8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1.0%로 가장 많았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나이는 고등학생이 17살에 경험한 경우가 40.6%, 대학생이 20살에 경험한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다.

둘째, 연구문제 1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화폐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에 대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성별, 학교 급별, 고등학교-학년, 거주형태, 경제적 형편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으로는 경험 유무, 소득사용처, 일간근무시간, 월평균소득,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나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정받기위한 수단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의 평균점수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다는 경우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성공의 상징은 고등학교 3학년이 2학년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높았으며, 첫경험연령이 20세 이상보다 20세 미만이 높았다. 미래안정의 도구는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감정충족의 도구는 남자보다 여자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과 3학년이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높았다. 불안의 원천은 남자보다 여자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과 3학년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우리 집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자취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20세 미만보다 20세 이상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인색과 불신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셋째, 연구문제 2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소비행태에 차이가 있는가? 에 대한 결과이다. 일반적 사항으로는 성별, 학교 급별, 학년, 가족형태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으로는 경험 유무, 시작동기, 소득사용처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과시소비는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는 경우보다 경험

이 있다는 경우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충동소비는 남자보다 여자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과 3학년이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더 높았다. 모방소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합리적 소비는 남자보다 여자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높았다.

넷째, 연구문제 3의 학교 급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는 어떠한가? 에 대한 결과이다. 과시소비에 대하여 고등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과 감정충족의 도구가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이 정(+)<sup>1</sup>의 영향을, 인색과 불신이 부(-)<sup>2</sup>의 영향을 미쳤다. 충동소비에 대하여 고등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감정충족의 도구, 인색과 불신이 충동소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고, 미래안정의 도구는 부(-)<sup>2</sup>의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감정충족의 도구, 인색과 불신이 충동소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고, 미래안정의 도구는 부(-)<sup>2</sup>의 영향을 미쳤다. 모방소비에 대하여 고등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감정충족의 도구가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도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감정충족의 도구가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쳤다. 합리적 소비에 대하여 고등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미래안정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색과 불신이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쳤으나, 성공의 상징은 부(-)<sup>2</sup>의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은 인정받기위한 수단, 미래안정의 도구, 불안의 원천이 합리적 소비에 정(+)<sup>1</sup>의 영향을, 성공의 상징은 부(-)<sup>2</sup>의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연구문제 4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는 어떠한가? 에 대한 결과이다. 과시소비에 대하여 ‘경험 유’는 인정받기위한 수단이 정(+)<sup>1</sup>의 영향, 인색과 불신이 부(-)<sup>2</sup>의 영향을 미치고, ‘경험 무’는 인정받기위한 수단이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쳤다. 충동소비에 대하여 ‘경험 유’는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인색과 불신이 정(+)<sup>1</sup>의 영향, 미래안정의 도구가 부(-)<sup>2</sup>의 영향을 미쳤고, ‘경험 무’는 인정받기위한 수단, 감정충족의 도구, 인색과 불신이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쳤다. 모방소비에 대하여 ‘경험 유’는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감정충족의 도구가 정(+)<sup>1</sup>의 영향을, ‘경험 무’도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공의 상징, 감정충족의 도구가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쳤다. 합리적 소비에 대하여 ‘경험 유’

는 인정받기위한 수단, 미래안정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식과 불신이 정(+)<sup>의</sup> 영향을, 성공의 상징이 부(-)<sup>의</sup> 영향을 미쳤고, ‘경험 무’는 미래안정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식과 불신이 정(+)<sup>의</sup>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연구문제 5의 학교 급별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결과이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인정받기위한 수단이 과시소비, 충동소비, 합리적 소비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모방소비, 대학생의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었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공의 상징이 과시소비, 충동소비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 대학생의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미래안정의 도구와 소비행태의 하위요인간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감정충족의 도구가 과시소비, 충동소비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모방소비, 합리적소비, 대학생의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었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불안의 원천이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대학생의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었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인식과 불신이 충동소비, 합리적 소비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과시소비, 모방소비, 대학생의 과시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었다.

## 2. 논의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소비성향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아르바이트 경험실태에 관하여 몇 가지 살펴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

두 76% 이상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사용처는 고등학생의 경우 주로 옷, 신발 등 패션비용에 대한 지출이었고, 대학생의 경우 학비나 생활비에 대한 지출인 점을 보았을 때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용돈의 개념, 용돈의 사용처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주말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었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나이는 고등학생이 17살, 대학생이 20살 때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경우 용돈의 인식이나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확립해야 할 것이고,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와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나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근로복지정책 등에 적극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경험 유’의 경우 소비행태의 하위요인 중 모방 소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과시소비, 충동소비, 합리적 소비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합리적 소비인 과시소비, 충동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보다는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충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 고등학생 보다는 대학생의 경우가 소비행태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학년이거나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소비자 교육, 금융교육, 경제교육 등을 제외하거나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 교육, 금융교육,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과시소비에서는 인정받기위한 수단과 감정충족의 도구로서의 화폐태도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과시소비성향이 감소될 것이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향을 감소시키면서 인색과 불신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과시소비성향이 감소 될 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향을 감소시켜야 과시소비 성향이 감소되겠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인색과 불신 성향을 증가시켜주면 과시소비 성향이 감소되는데 더 수월할 것이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생의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고,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로도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소비자를 위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 급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로 집단을 나누어야 비합리적 소비 성향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증가시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등학생의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부 매개효과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소비행태 성향을 확립하는 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별 소비행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의 경우 소비행태의 하위요인 중 과시소비, 충동소비, 합리적 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의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건전한 화폐태도 성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면 합리적인 소비성향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전한 화폐태도 성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 혹은 지도자의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고등학생에 대한 화폐태도를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지의 여부나 기간 등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제도적인 제언을 추가한다면, 근로경제교육센터(가칭)나 소비경제복지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시범적인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전국단위의 설치와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 외에 교육이나 주변 환경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 한국소비자원에서 행하는 직업교육, 구직알선, 고용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과는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근로를 원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무관리 교육, 피고용자로서 근로자의 권리 교육, 소비자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 즉 고용자를 대상으로도 고용윤리와 의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보다 나은 소비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조<sup>2)</sup>와 제124조<sup>3)</sup>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 즉,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장차 주된 소비자로서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증가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이처럼 비합리적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향함으로써 똑똑한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 합리적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향상된 재화와 서비스 즉,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원동력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지역적 한계, 설문지 구성상의 의미중복과 수집된 자료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 일시적인 조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지역적 한계는 제주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단위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기존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짜임새와 응답빈도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부족하였다. 셋째, 지속적으로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인 조사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 화폐태도,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표본추출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중복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참고문헌

- 고관우·남진열.(2012).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4(2): 149-168.
- 고민기.(2006).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공은희·성영애.(2011). 중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4): 21-39.
- 권미화.(2000).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행동의 합리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경자.(2003).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3): 33-50.
- 김미송.(2010). 「고등학생의 소비행태에 관한 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숙.(2003).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실태분석을 통한 복지대책 방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 김미정.(2014).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주.(2012). 「고등학생의 경제이해 정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천·강욱모·김혜성·박경숙·박능후·박수경·송미영·안치민·엄명용·윤혜미·이성기·최경구·최현숙·한동우.(2009). 「사회복지학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영신.(2001). 대학생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른 강박적 구매행동. 「소비문화연구」. 4(3): 41-66.
- 김정훈·이은희.(2002).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21-128.
- 김중성·이병훈.(2010).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33-59.
- 김태성·홍선미·조성은.(2010). 「사회복지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혜경.(2013).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대한민국헌법.(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 호)
- 린쉬에.(2013). 「한·중 대학생소비자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행동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린쉬에·조향숙·김시월.(2013). 화폐태도 척도 개발 및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화폐태도 비교. 「Financial Planning Review」. 6(4): 71-97.
- 문예진.(2009).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성향과 과소비성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혜진.(2002).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복지동향」. 46: 56-60.
- 박광애.(2007).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명희.(1994). 「소비자 의사 결정론」. 서울: 학현사.
- 박정숙.(2001). 「대학생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의복구매행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정숙·차경옥.(2003). 대학생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의복구매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6): 13-28.
- 박정화.(2009). 「경제적 지위와 화폐태도에 따른 소비성향 및 여행상품 선택속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박정화·조용현.(2010). 경제적 지위와 화폐태도에 따른 소비성향 및 여행상품 선택속성의 차이. 「관광학연구」. 34(3): 191-213.
- 백은영.(1997).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계의 저축 및 지출행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백은영·정순희.(1998). 도시가계의 화폐태도유형과 지출행동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3): 47-60.
- 백지숙.(2007).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 년시설학회논문집」. 4(1): 3-11.
- 송시은.(2007). 「청소년 소비자의식과 합리적 소비행동」.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묘탁.(2014). 「비행청소년의 경제의식 및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심미영.(2006). 청소년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성향과 소비자문제 유형분석. 「사회과학연구」. 22(2): 455-479.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배경내 · 조혜영 · 박민경.(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안선영 · 황여정 · 이수정 · 이로사.(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안소윤.(201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소비와 직업에 대한 태도 및 진로의식성숙도: 수원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영희.(1999). 「청소년의 과소비성향과 관련변수: 경주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진숙.(2007).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용윤준.(2005).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은정.(2008). 「사업체급식소 이용자의 소비행태와 화폐태도에 따른 가격탄력성 및 가격민감성 차이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 유두련 · 박영미 · 함현정.(2004). 중 · 고등학교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7(1): 23-46.
- 유성렬.(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255-281.
- 유수현.(2011). 「소비자의 시간인식, 화폐태도에 따른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의 구조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주현.(2008). 「경제의식과 소비행태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

-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기춘 · 박명희 · 김영신 · 김기욱 · 이승신 · 서정희 · 손상희 · 심영 · 최은숙 · 강이주 · 김외숙 · 윤정혜 · 송인숙 · 이은희 · 여정성 · 김경자.(2001). 「소비자학의 이해」. 서울: 학현사.
- 이매결.(2014). 「시간제 근로학생의 직무태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RG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이영희.(2000). 「청소년소비자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관련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은.(2013). 「바우처제도와 클라이언트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이학식 · 안광호 · 하영원.(2003). 「소비자 행동: 마케팅 전략적 관점」. 서울: 법문사.
- 이형순.(1983). 「경제학 원론」. 서울: 박영사.
- 이형실 · 이은정.(2004). 남녀 중학생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6(4): 167-176.
- 이효민.(2005). 「고등학생의 소비행태와 소비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한나.(2014). 「SPA 브랜드의 VMD 유형이 소비자 태도와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각추구성향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 임혜원.(2006).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의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용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전유현.(2008). 「청소년의 돈에 대한 태도와 합리적인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희원.(2011). 「청소년의 소비자의식과 돈에 대한 태도가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미정 · 이연숙.(2007).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소비행태 및 관련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1-17.
- 정은영 · 이은희.(2007). 청소년의 인터넷 아이템의 구매실태 및 충동, 모방, 과시

- 소비 성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8): 105-126.
- 정 준.(1997). 「소비사회의 실상과 바람직한 소비문화의 모색」.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정지연.(2010). 「여자 중·고등학생의 소비자의식 및 소비자 교육에 따른 합리적 소비행동」.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경욱·최민영.(2010). 청소년의 의류구매행동에서 나타난 과소비성향과 동조 소비성향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1): 27-45.
- 최윤정.(2010). 고등학생의 금융이해 정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71-205.
- 최지영.(2009). 「아르바이트경험이 전문계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최현자·조혜진.(2007)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화폐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3(1): 121-139.
- 한가은.(2015). 「대학생의 재무관련 요인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한국소비자보호원.(1996).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국민 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 미.(2012). 「한·중 대학생소비자의 화폐태도에 다른 과소비성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한연숙.(2002).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의 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경기북부실업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 홍은실·황덕순.(2001). 여대생 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4(2): 21-38.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Goldberg, H. & Lewis, R. T.(1978). Money Madness: The many side of coin.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 Hallowell, E. M. & Grace, W. J.(1991). Money and Mind: Money style. New York: Plenum press.
- Leibenstein, H.(1950). Bandwagon, snob, and Veblen effect in the theory of consumers' demand.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4(5): 183-207.
- Tang, T. L. P.(1992). The meaning of money revisite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2): 197-202.
- Wilhelm, M. S., Varcoe, K. & Fridrich, A. H.(1993). Financial Satisfaction and Assessment of Financial Progress: Importance of Money Attitud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1): 181-198.
- Yamauchi, K. T. & Templer, D. J.(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5): 522-528.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김태한입니다. 현재 청소년의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이라도 비어있게 되면 통계자료로써 사용 할 수 없게 되오니, 부디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사항들은 숫자와 기호로 입력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4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 김태한(taptap3@hanmail.net)

지도교수 : 남진열

※ 소비행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곳에 O표 하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값이 비싼 물건을 사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신발, 가방 등을 살 때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품 보다 외국브랜드를 선호하는 편이다.	1	2	3	4	5
3	나는 옷을 살 때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유명한 상표의 제품을 고르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물건을 구입할 때 광고에 나오는 상표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다.	1	2	3	4	5
5	나는 가격이 비싼 물건이 품질도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편이다.	1	2	3	4	5
6	내가 산 물건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면 기분이 좋다.	1	2	3	4	5
7	나는 TV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보면 남보다 빨리 그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물건을 산 후 자주 후회하는 편이다.	1	2	3	4	5
9	나는 우연히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 당장 필요한 물건은 아니더라도 일단 사고 보는 편이다.	1	2	3	4	5
10	나는 색상이나 디자인 포장이 마음에 드는 상표의 물건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11	나는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물건을 사는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선물가게나 문방구 등에서 포장을 보고 구매하였다가 후회를 하는 편이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3	주변의 친구들이 유행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따라 사는 편이다.	1	2	3	4	5
14	나는 친구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주위의 친구가 입고 있는 유명상표의 옷이 입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간청하여 구입한 적이 있다.	1	2	3	4	5
16	주변의 친구가 값비싼 유명상표의 학용품을 샀을 때 나도 따라 사는 편이다.	1	2	3	4	5
17	나는 물건을 살 때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편이다.	1	2	3	4	5
18	나는 다른 친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핸드폰 등)을 남보다 빠르게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19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의 구매경험을 귀담아 들어 상품이나 상점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연구하는 편이다.	1	2	3	4	5
20	나는 물건을 살 때 사야 할 물건의 종류, 상표, 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구매하는 편이다.	1	2	3	4	5
21	나는 물건을 살 때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차례로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22	나는 신발, 가방을 살 때 다른 회사의 제품, 다른 상점의 가격과 비교하여 본 후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23	나는 포장된 상품을 살 때에는 내용물에 대한 성분, 주의사항 등을 먼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1	2	3	4	5
24	나는 가격이 비싼 물건을 살 때에는 세일기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1	2	3	4	5

※ 화폐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곳에 O표 하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구입할 때가 있다.	1	2	3	4	5
2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고급스런 물건을 갖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돈이 성공의 궁극적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가끔씩 나의 용돈 또는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랑하곤 한다.	1	2	3	4	5
5	나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성공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재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때때로 능력이나 성취와는 관계없이 나보다 돈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9	나는 최고급품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편이다.	1	2	3	4	5
10	나는 가능한 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편이다.	1	2	3	4	5
11	나는 유명브랜드 제품을 사는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미래를 위해 재정계획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3	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저축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4	나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1	2	3	4	5
15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6	나는 어떤 목적에서든지 원가를 살 때 가격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	1	2	3	4	5
17	물건을 산 후에는 꼭 다른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8	나는 비싼 물건을 살 때 마다 꼭 속아서 사는 것 같다.	1	2	3	4	5
19	나는 돈이 있건 없건 일단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 라고 말하는 편이다.	1	2	3	4	5
20	나는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1	나는 별로 원치 않는 물건이라도 세일기간 중이거나 가격이 인하되면 사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1	2	3	4	5
23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카드나 월부(할부)로 사는 편이다.	1	2	3	4	5
24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진다.	1	2	3	4	5
25	나는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는 편이다.	1	2	3	4	5
26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걱정된다.	1	2	3	4	5
27	돈의 양이 크든 적든 돈을 쓰는 결정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1	2	3	4	5
28	나는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0	나는 돈 지출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p>1. 당신의 성별은? ①남            ②여</p> <p>2. 당신이 다니는 곳은? ①고등학교    ②대학교</p> <p>3. 당신의 학년은?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p> <p>4. 당신의 가족형태는? ①부모 ②한부모 ③조부모 ④본인 가장 ⑤기타(설명: _____ )</p>	<p>5. 당신의 현재 거주형태는? ①우리 집 ②친척 집 ③기숙사 ④자취 ⑤하숙 ⑥기타(설명 : _____ )</p> <p>6. 당신 가족의 경제적 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①아주 잘 사는 편이다. ②대체로 잘 사는 편이다. ③중간정도 ④대체로 못 사는 편이다. ⑤아주 못 사는 편이다.</p>
---	---

※다음은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해본 경험이 있나요?

- ①예. (☞ 2번 문항부터 계속해서 답해주세요)
- ②아니요. (☞ 여기서 설문을 중단 해주세요.)

2.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1가지만 고르세요.

<p>①용돈을 벌기 위해서 ②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③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 ④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⑤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p>	<p>⑥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⑦저축을 위해서 ⑧새로운 일을 배우기 위해서 ⑨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⑩기타(설명 : _____ )</p>
---	---

3.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1가지만 고르세요.

<p>①노래방, PC방, 당구장 등 여가생활비 ②선물이나 고가의 물건 구입(휴대폰 등) ③학비나 생활비 ④부모님이나 동생 용돈 ⑤이·미용비(화장품 구매 등 포함)</p>	<p>⑥옷, 신발 등 패션비용 ⑦음주 등 유흥비 ⑧이성친구와의 데이트비용 ⑨빚을 갚음 ⑩기타(설명: _____ )</p>
--	---

4. 아르바이트를 주로 언제 하나요?

- ① 학기 중 평일
- ② 학기 중 주말
- ③ 학기 중 평일, 주말 모두
- ④ 방학 때만
- ⑤ 방학 유무 관계없이 모두

5.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일주일에 며칠 동안 하나요?

- ① 1~2일
- ② 3~4일
- ③ 5~6일
- ④ 매일
- ⑤ 정해져 있지 않음

6.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나요?

- ① 2시간 미만
- ②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 ③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 ④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⑤ 8시간 이상

7. 한 달 평균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정도 되나요?

- ① 20만원 미만
- ②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 ③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 ④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 ⑤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⑥ 100만원 이상

8. 몇 살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나요? (\_\_\_\_살 때)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Influences of Youths' Money Attitude on Their  
Consumption Behaviors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t-time job experiences-

Kim, Tae Han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 Yeol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money attitude on consumption behaviors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part-time job experiences on the relation between money attitude and consumption behaviors by looking at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job experiences, money attitude, and consumption behaviors in Jeju Island. Ultimately, this research attempted to seek ways to reduce irrational consumption propensity and to increase rational propensity to consume.

A survey for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mong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residing in Jeju Island by distributing 700 questionnaires. 634 of those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18.0. With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were calculate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main results of the above analy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reality of part-time job experiences showed that 52.5%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90.1% of the university students had part-time job experiences. In addition to this, the high school and the university students revealed differences in the reality of their part-time job experiences in many other factors including the motive for starting part-time jobs, income usage, main working time, the number of working days in a week, working hours in a day,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e age at which they had the first experience of working part-time.

Seco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whether socio-demographic factors would make a difference to money attitude display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gender, school level, the grade in high school, the type of residence, economic situations, part-time job experiences, the usage of earnings, working hours in a day,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e age at which they had the first experience of working part-time.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whether socio-demographic factors would make a difference to consumption behavior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school level, the grade, the type of family, part-time job experiences, the motive for starting part-time jobs, and the usage of earnings.

Four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ttitude and consumption behaviors by school level exhibited that most sub-factors of money attitude had positive effects on each sub-factor of consumption behaviors in both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A few sub-factors had negative effects and the patterns of the relationship were different between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Fif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link between money attitude and consumption behaviors depending on part-time job experiences showed that

most sub-factors of money attitude had positive effects on each sub-factor of consumption behaviors and some of the sub-factors had negative effects only in the group of students who 'had the experience of working part-time'. The relationship displayed different patterns between the groups who 'had' and 'did not have the experience of working part-time'.

Six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if part-time job experiences would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ttitude and consumption behaviors by school level revealed that the high school students' part-time job experiences ha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their money attitude and consumption behaviors. Howev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eans of future stability among the sub-factors of money attitude and consump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part-time job experiences was not found. Meanwhile,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of working part-time did not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link between money attitude and consumption behaviors.

This study tried to find ways to help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increase their rational consumption propensity so that they can lead a sensible consumption life as main consumers in the future. This research tried to do so because students who abstain from irrational consumption and pursue rational consumption can become smart, wise, and rational consumers and, as a consequence, they can benefit from improved goods and services, in other words, improved welfare services. Eventually, their rational consumption propensity will become a driving force behind the pursuit of a better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Keyword : part-time job, money attitude, consumption behaviors**